

여·야, 재벌 국감증인 충돌

metro®

메트로 2015년 9월 2일 수요일 제3292호 www.metroseoul.co.kr

market index <1일>

코스피	1914.23	(-27.26)
코스닥	672.94	(-14.17)
금리(국고채 3년)	1.74	(+0.02)
환율(원·달러)	1172.30	(-10.20)



"난 따뜻한 여자에요"

2000년대 초반 TTL 소녀로 인기를 얻었던 배우 임은경(31)이 10년여 만에 영화 '치외법권'(감독 신동엽)으로 돌아왔다.

지난달 27일 개봉한 '치외법권'에서 임은경은 동생을 찾는 언니 은정을 연기했다. 임창정, 최다니엘, 장광 등 좋은 배우들과의 작업에 끌려 선택했다. 실종자를 둔 가족에 대한 영상을 찾아보며 감정 연기에 노력을 쏟았다. ▶관련기사 18면

/장병호 기자 solanin@metroseoul.co.kr



차디찬 신한銀

'금융보국' '따뜻한 금융' '리딩뱅크' 번지르르 기부금 시중은행 중 꼴찌… 우리銀의 7% 불과

'리딩뱅크' 신한은행(은행장 조용병·사진)이 시중 은행 가운데 가장 적은 기부금을 책정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신한은행은 그동안 '금융보국'의 창업 정신에 따라 '따뜻한 금융'을 실천 목표로 내세웠다.

하지만 국민·우리·하나·기업은행 등 경쟁 금융사에 비해 현저히 낮은 기부금 집행내역을 보면 '따뜻한 금융'이란 말이 무색해 보인다.

1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신한은행이 올해 2분기 기부한 금액은 12억2800만원이다. 같은 기간 우리은행은 이보다 15배 많은 180억6500만원을 기부했다. 또 국민은행은 54억1300만원, 하나은행은 22억3100만원, 기업은행은 38억400만원을 기부했다.

특히 상반기 기부금 실적은 신한은행(33억3500만원)이 시중 5대 은행 중 가장 적었다.

우리은행은 업계 중 가장 많은 총 286억1100만원을 기부했다. 이어 국민은행(89억6600만원), 기업은행(60억1738억원), 하나은행(54억1755억원) 순으로 집계됐다.

◆당기순이익 업계 최고… 기부금은 최저

신한은행은 올해 2분기 3277억원 이상의 순이익을 기록하며 은행업계서 최고의 수익을 낸 것으로 추정된다. 이 가운데 기부금 비중은 0.37%로 다른 주요 은행보다 현저히 뒤진다. 기부금에 가장 큰 비율을 할애한 곳은 우리은행으로 1999억원의 순이익 중 9.03%를 기부했다. 국민은행은 2569억원의 순이익 중 2.11%, 하나은행은 3117억원 가운데 0.72%, 기업은행은 2666억원 중 1.43%를 기부에 사용했다.

신한은행의 지주사인 신한금융지주는 LIG손해보험을 인수하면서 덩치를 키운 KB금융그룹과 순이익 선두를 두고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또 1일 출범한 KEB하나은행이 자산규모에서 업계 1위로 올라서며 '업계 최고' 타이틀에 도전장을 내 수세에 몰려있다.

이런 가운데 신한금융지주는 1일 서울 본사에서 지주사 창립 14주년 기념식을 열었다.

한동우 신한금융지주 회장은 이 자리에서 "우리 경제 성장 잠재력이 저하되고 기업 수익성이 악화되면서 금융업을 비롯한 산업 전반에 걸쳐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기 위해 고민해야 한다"며 '새 시대에 맞는 창조적인 생각', '글로벌 경쟁력 업그레이드'와 '고객이 체감하는 따뜻한 금융' 등을 실천할 것을 주문했다.

'따뜻한 금융'은 신한금융이 기회가 있을 때마다 공언해온 기업 이념으로 조용병 신한은행장도 최근 공적인 자리에서 "미래를 함께하는 따뜻한 금융에 더욱 박차를 가하자"고 강조하기도 했다.

◆기부금 비율 지속적 축소… 순익比 기부비율 1% 이하

신한은행은 해마다 기부금 비율을 지속적으로 축소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신한은행은 2013년 1조3414억원의 당기순이익 가운데 2.66%인 356억원을 기부했다. 하지만 다음 해인 2014년 당기순이익 1조4333억원 중 125억원을 기부해 기부금 비중이 0.87%로 3분의1 수준으로 줄었다. 올해 상반기 순이익 대비 기부금 비율이 0.49%인 것을 감안하면 올해도 1% 안팎의 기부금 책정이 예상된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지주사 차원에서 '본업을 통해 고객을 널리 이롭게 한다'는 '따뜻한 금융'의 기업이념을 실천하는 것은 맞지만 기부뿐만 아니라 사회공헌, 봉사활동 등 다각적 측면의 활동을 의미하는 것"이라며 "기부금도 회계에 '기부금' 항목으로 들어간 것 외에 다른 여러 항목에 분산돼 있어 수치만으로 판단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설명했다.

한국기부문화연구소 관계자는 "국내 기업들은 홍보나 이미지 개선 등을 위해 기부를 하는데 외국의 경우 CEO의 사회 환원과 책임 정신에서 기부를 하고 있다"며 "일부 기업은 '줄 곳이 마땅치 않다'는 등의 이유로 기부를 꺼리고 있는데 기부가 사회공헌 활동의 첫걸음이란 중요성을 인식하고 실천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김보배 기자 bobae@metroseoul.co.kr

Hyundai Lotem executives fight over rights of company newspaper publication

현대로템 임원-계열사 고문, 사보제작권 놓고 밥그릇싸움

It is suspected that the resigned executives from subsidiary companies of Hyndai Motors and the current executives of Hyundai Lotem are giving publishing jobs away to certain companies or ones under their wives' names. In this process, the current executive manager of Hyundai Lotem and the executives of Hyundai Motors are fighting over more profits and the relative companies are sharing the profits from company newsletters and labor union newsletters publication which brought up the regressive customs of Korean Companies again.

According to some personnel from Hyundai Motors, Wonder Enterprise that is in charge of production of company newsletters is a company, managed by the wife of Yoo Hong Jong, the previous CEO of Hyundai BNG Steel.

Mr. No, a team leader of management support team, is showing off his acquaintance with Yoon Yeo Chul, Vice president of Hyundai Motors and Han Kyu Hwan, the previous executive from Hyunai Lotem and he directed the staffs in charge of the publishing work to transfer the partnership to the company called 'Work Design' from the previous partner.



현대자동차그룹 계열사 출신 퇴직임원과 현대로템 현직 임원이 각각 자신의 부인명의 회사 등 특정 업체에 계열사들의 사보제작을 맡기면서 일감몰아주기를 한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 과정에서 현대로템 현직 전무와 현대차 계열 출신 임원간 밥그릇 싸움이 벌어져 사보와 노조소식지를 관계사들이 나눠 맡는 등 현대차그룹의 퇴행적인 기업문화가 도마위에 오르고 있다.

31일 현대차그룹 내부관계자와 관련업계에 따르면 사보를 제작하는 원더엔터프라이즈는 유홍종 전 현대비엔지스틸 회장의 부인이 운영하는 업체다.

노 모 현대로템 경영지원본부장은 윤여철 현대차 부회장, 한규환 전 현대로템 대표이사등과의 친분을 내세우며, 기존 사보 제작을 워크디자인이란 업체로 바꾸기 위해 업무 담당자들에게 업체 변경을 지시했다.

/EDB 영어회화학원 대표강사 닥터 벤

국제

▲  일본의 한 회사가 수년간 사원들에게 **혐한**(한국 혐오)를 강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회사에 파트타임으로 근무하던 40대 한국인 여직원은 자신의 존재가 부정당했다며 회사를 상대로 위자료 등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 **중국의 8월 제조업** 구매관리자지수(PMI)가 3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지면서 중국 증시가 곤두박질치자 중국 당국이 다시 시장 개입에 나섰다.

▲ **중국인민해방군**이 현행 7대군구 체제를 4대군구로 개편하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한 국방개혁안을 이르면 이달 중으로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 **미국 산유**량이 줄고 산유국들도 생산량 조절에 나서자 국제 유가가 큰 폭으로 오르며 마감했다.

▲ **유적지 폭파**를 자행하는 수니파 무장조직 이슬람국가(IS)가 시리아 팔미라의 고대신전을 완전히 파괴했음이 위성사진으로 확인됐다.

정치

▲  외교부는 명성황후를 암살된 민비라고 부르며 **박근혜 대통령**에 비유한 일본 산케이신문의 8월 31일자 칼럼에 대해 신문사에 강력히 항의하고 칼럼의 삭제를 요구하기로 했다. 청와대는 일체의 논평을 자제하고 외교부에 조치를 일임했다.

▲ **박근혜 대통령**은 '8·25 남북합의'와 관련해 "어렵게 이뤄낸 이번 합의를 잘 지켜 나간다면 분단 70년간 계속된 긴장의 악순환을 끊고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위한 협력의 길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새누리당과 정부는 당정회의에서 **질병관리본부장**을 차관급으로 격상해 전염병 발생시 컨트롤타워를 맡도록 결정했다.

▲ '재벌 리스크'가 한국 경제를 뒤흔든 올해였지만 여느 해와 마찬가지로 야당은 **재벌 총수**의 국정감사 증인 채택에 적극적인 반면 여당은 경제가 어렵다는 이유로 재벌 총수 등의 증인 채택을 최소화하자고 맞서고 있다.

사회

▲ **가습기 살균제** 사건 피해자들이 가습기 제품 제조사의 영국 본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낼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 시의 계획을 인용해 아파트 앞에 공원과 경전철이 생긴다는 **건설업체 광고**는 허위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이로 인해 잔금 지급을 거부한 분양자들이 위약금을 추가로 물게 됐다.

▲ 미군이 우리나라에서 저지른 범죄와 관련해 우리 사법당국이 **주한미군지위협정**(SOFA)에 따라 재판권 행사를 포기한 사건의 정보를 공개할 필요는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에게 명의를 빌려 지하철 승강장 자판기·매점 입찰에 참여한 **자판기 업자**들이 적발됐다.

▲ **경기도교육청**이 추진하는 사업과 관련해 납품업체로부터 뒷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전 경기도교육감 비서실장 정모(45)씨가 2심에서도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추석 3주 앞으로… 물류센터 "바쁘다, 바빠" 추석을 20여 일 앞둔 1일 오전 경기도 오산에 위치한 롯데마트 물류센터에서 직원들이 추석 선물세트 등을 전국 점포로 배송하기 위한 분류 작업을 하고 있다. 롯데마트는 추석을 앞두고 물류센터에서 처리하는 물량이 평상시보다 약 40% 이상 증가해 하루에 25만 박스 정도를 분류해 배송하고 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산업·경제

▲ 

국내 최대 규모의 '메가뱅크'인 **KEB하나은행**이 1일 공식 출범했다. 김정태 하나금융 회장이 지난해 7월에 하나·외환은행의 조기통합을 선언한 지 1년2개월 만이다.

▲ **중국발 경기후퇴** 우려가 재차 불거지면서 코스피를 비롯해 중국 일본 등 아시아 증시가 나란히 약세를 보였다.

▲ **수협중앙회**가 '노량진 수산시장 유휴부지 복합리조트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기로 했다. 이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주관하는 복합리조트 사업에서 서울이 사업대상지역에서 제외됐기 때문이다.

▲ 국내 128개의 **건설회사**들의 올해 상반기 수익·안정성 지표가 정부의 적극적인 건설·부동산 경기 활성화 방침에도 매출이 감소하는 등 좋지 않은 성적을 냈다.

▲ **'뉴스테이'**로 불리는 기업형임대주택 민간사업자 공모 경쟁률이 2.5대1의 경쟁률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 **삼성그룹**의 실질적 지주회사인 통합 삼성물산이 출범했지만 '편법승계' 논란은 끊이지 않고 있다. 삼성이 3세 승계를 염두에 두고 2013년부터 추진해온 지배구조 개편이 어느정도 결실을 맺은 듯 보이지만 앞으로 '이재용 체제'에 대한 후유증도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 **삼성전자**와 LG전자가 TV 시장 점유율을 끌어올리기 위해 가격 경쟁에 나선다. 양사는 SUHD TV와 올레드 TV를 보다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프로모션을 진행한다.

▲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 절차가 완료되면서 '제일모직'이라는 사명(社名)은 당분간 볼 수 없게 됐다. 제일모직은 1일 태평로 본관에서 이사회를 열고 삼성물산으로의 합병 종료를 이사회에 보고했다.

▲ **환경노동위원회** 야당 의원들이 홈플러스 매각가 관련 테스코의 데이브 루이스 사장과 홈플러스 도성환 사장, 본입찰에 참여한 MBK파트너스 김병주 회장에게 10월8일 국정감사 증인 출석을 요청했다.

정부, 日 산케이에 '망언 칼럼' 삭제 요구

산케이 "대통령=암살된 민비"
靑, 사태 확산 우려에 침묵
외교부 통해 강력 항의키로


www.sankei.com/premium/print/150831/prm1508310009-c.html

産経ニュース　閉じる

2015.8.31 06:00

【野口裕之の軍事情勢】米中二股　韓国が断ち切れぬ「民族の悪い遺産」

韓国外交を眺めていると、中島みゆきさんの名曲《時代》が、どうしても頭に浮かぶ。

♪めぐるめぐるよ時代はめぐる　別れと出会いをくり返し

時代を《事大》に置き換えると、韓国外交異史が鮮やかに浮かび上がる。《事大主義》とは《小》が《大》に《事（つか）える》こと。強国に韓国が付き従う外交形態を指す。

「事大主義」が貫く外交

李氏朝鮮（1392～1910年）も末期、清→日本→清→日本→ロシア→日本→ロシア…と、内外情勢変化の度に事大先をコロコロと変えていった。そのDNAを色濃く継承する韓国は、李氏朝鮮の再来を思わせる見事な「事大ブリ」を披露する。最大の貿易相手国・中国が主導する金融秩序には自ら身をささげ、朴槿恵（パク・クネ）・大統領（63）は北京で催される《抗日戦争勝利70年記念》軍事パレードを参観する。いずれも米政府の反対をすり抜けたばかりか、中国の「目」を気にして、米政府の高高度防衛ミサイル配備提案も中ぶらりんにしたまま。

ところが、だ。北朝鮮軍の砲撃を受け、米軍には後詰めではなく、共同対処をお願いする始末。まさに《事大》は《めぐる》が、朝鮮が事大先を替える度、わが国は存亡の危機に瀕してきた。日本が独立を促すと、清にすり寄り日清戦争（1894～95年）の火ダネを造った。日本が勝ち、朝鮮を独立さ

일본 우익성향 매체 산케이 신문인터넷판이 박근혜 대통령의 중국 전승절 열병식 참석을 비판하면서 박 대통령을 일본 낭인들에 의해 암살된 명성황후에 비유해 파문을 일으키고 있다. 사진은 산케이의 노구치 히로유키(野口裕之) 정치부 전문위원이 쓴 문제의 칼럼을 캡처한 것이다. /연합뉴스

외교부는 1일 명성황후를 암살된 민비라고 부르며 박근혜 대통령에 비유한 일본 산케이신문의 전날 칼럼에 대해 신문사에 강력히 항의하고 칼럼의 삭제를 요구하기로 했다.

청와대는 일체의 논평을 자제하고 외교부에 조치를 일임하고 있다. 사태를 확대해 봐야 산케이신문에 좋은 일만 만들어주는 셈이라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노광일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역사 왜곡과 역사수정주의의 DNA를 갖고 과거사에 대해 후안무치한 주장을 일삼는 일본 내 특정 인사와 이와 관계되는 언론사의 터무니없는 기사에 대해 정부 차원에서 논평할 일고의 가치도 느끼지 못한다"며 "기사의 내용도 문제이고 그런 기사를 실은 언론사에 대해서도 품격의 문제가 있지 않나"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도 "문제 있는 기사에 대해 시정조치를 요구하는 것은 별개 차원이라고 생각한다"며 산케이신문에 칼럼의 삭제를 요구하기로 했다. 외교부는 주일한국대사관을 통해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산케이신문의 노구치 히로유키 정치부 전문위원은 전날 오전 산케이 인터넷판에 '미중 양다리, 한국이 끊지 못하는 민족의 나쁜 유산'이라는 제목의 칼럼을 통해 박 대통령의 중국 전승절 열병식 참석을 사대주의 행보라고 주장하고, 구한말 명성황후의 외교정책에 빗댔다.

그는 "일본의 청일전쟁 승리로 조선은 청나라의 책봉 체제에서 간신히 빠져 나왔다. 대원군파에 다시 힘이 실려 청나라라는 후원자를 잃은 민씨(명성황후) 파는 쇠퇴했다"며 "민씨 파가 1895년 러시아군의 지원으로 권력을 탈환한 지 3개월 뒤 민비는 암살된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열병식 참석에 대해 "한국에 중국은 침략자인데 한국이 국가 전체의 도착에 대해 아픔과 거려움을 느끼지 못하고 있거나 도착에 대한 자각·감각이 없다"고 비꼬았다.

산케이신문은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의 열병식 참석과 관련해서도 일본 정부의 성명을 요구하는 등 비난 여론을 주도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실제 산케이신문의 요구가 있은 뒤 정부 대변인 격인 관방장관을 통해 반 총장을 비난하는 말을 쏟아냈다.

/송병형 기자 bhsong@metroseoul.co.kr

"日회사, 수년간 '한국혐오' 강요"

재일 韓 여직원 고통 호소

일본의 한 회사가 수년간 사원들에게 혐한(한국 혐오)를 강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회사에서 파트타임으로 근무하던 40대 한국인 여직원은 자신의 존재가 부정당했다면서 고통을 호소했다. 이 여직원은 법원에 위자료 등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1일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일본 오사카에 본사를 둔 부동산 관련 대기업 후지주택에서 근무하는 40대의 한국인 여직원은 회사를 상대로 위자료 등 3300만엔(약 3억2249만원)의 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 여성은 아사히에 회사가 2013년부터 중국과 한국을 비판하는 책과 잡지 기사는 물론이고 이를 읽은 사원이 작성한 비슷한 내용의 감상문을 연일 회장 명의로 사원들에게 배포했다고 밝혔다. 이 감상문에는 '한국과 중국의 국민성은 나도 정말 싫다'는 내용이 담겼다고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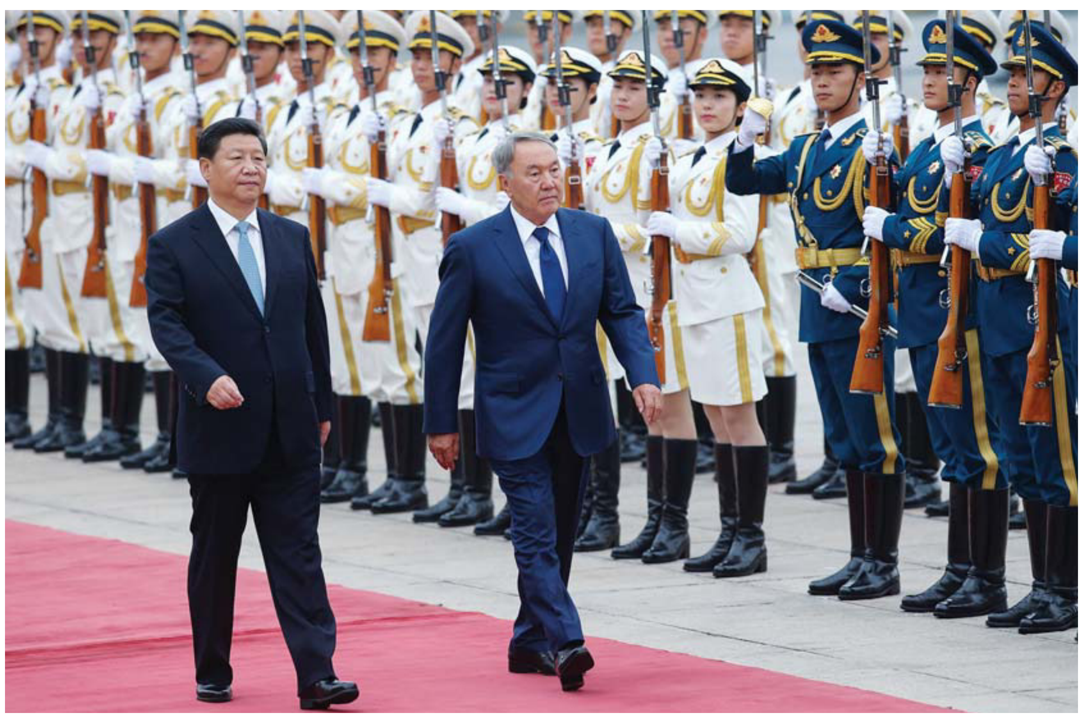
이 회사는 지난 5월 회장 명의의 문서를 사원들에게 배포하며 우익 교과서인 이쿠호샤 중학교 교과서의 채택을 위한 활동에 나설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 이 교과서는 태평양전쟁에 대해 '구미에 의한 식민지 지배로터 아시아 국가들을 해방시키기 위한 것'이라는 식의 주장을 담고 있다. 사원들은 각지의 교육위원회에 교과서의 채택을 요구하는 편지를 쓰도록 강요받았고, 심지어 근무시간에 편지를 작성하기도 했다.

한국인 여직원은 법원에 소장을 제출한 뒤 기자회견을 통해 "회사의 회장이 직원들에게 교과서 채택 운동에 협력할 것을 요구한 것은 사실상의 강요이다. 헌법이 보장하는 인격권의 침해이기에 회사와 회장에게는 배상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회사가 사원들에게 배포한 문서에 대해 "'거짓말이 만연하는 민족성' 등 차별적 표현이 많았다. 나 같은 존재는 있을 곳이 없다"며 비통한 심정을 밝혔다.

/송시우 기자 swsong@



美 최강 핵항공모함, 日 기지로… 미국 최강 핵항공모함 로널드 레이건이 샌디에이고 해군기지를 떠나 일본 요코스카 기지로 향했다. 중국에게는 위협적인 존재다. 존 알렉산더 미 7함대 항모전단 사령관은 "로널드 레이건 배치로 미일동맹이 더욱 확고해지면서 서태평양의 평화와 안정을 지키는 기반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각국 정상, 속속 중국으로… 3일 전승절을 앞두고 중국 베이징에 각국 정상들이 속속 도착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갖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2일 도착해 당일 시 주석과 정상회담을 할 예정이다. 여기서는 북핵 등 한반도와 동북아 문제가 논의될 예정이다. 해외에서는 한중관계가 이를 계기로 더욱 가까워지며 북한의 고립이 심화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사진은 지난달 31일 베이징에 도착한 누르술탄 나자르바예프 카자흐스탄 대통령. /연합뉴스

中서 한국 주도 통일 불가피론 솔솔

권영세 전 주중국대사
달라진 북중관계 전해

권영세 전 주중국대사가 재임 당시 중국에서 한국 주도의 한반도 통일 불가피론을 들었다고 말했다. 혈맹이라던 북중관계가 급격히 소원해진 것이 배경이 됐다는 분석이다.

권 전 대사는 1일 방송에 출연해 재임 시절 북중관계 악화를 직접 목격했다며 "심지어 중국 학자들 중에서 일부는 지금 현재 북한의 모습을 볼 때 대한민국 주도의 한반도 통일은 불가피한 것이고 중국도 그런 부분을 받아들이고 거기에 맞춘 한반도 정책을 생각해야 한다는 정도의 주장까지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중국에서 본 북중관계는 중국에 가기 전에 이야기를 들었던 것보다 훨씬 더 안 좋았다"며 "중국의 고위인사들 중에서 지금 북한의 김정은과 북한의 지도부에 관해 잘 아는 사람이 별로 없다는 이야기를 솔직하게 할 정도로 북중관계는 요즘 그렇게 좋지 않다. 실제 일을 하면서도 북한과 중국 쪽의 의미 있는 교류는 거의 볼 수 없었다"고 말했다.

특히 "장성택 숙청에서 처형이 불과 3~4일밖에 걸리지 않았는데 중국은 세세한 부분은 전혀 모르는 듯한 눈치였고 그 부분에 관해 굉장히 우리에게 많이 물어왔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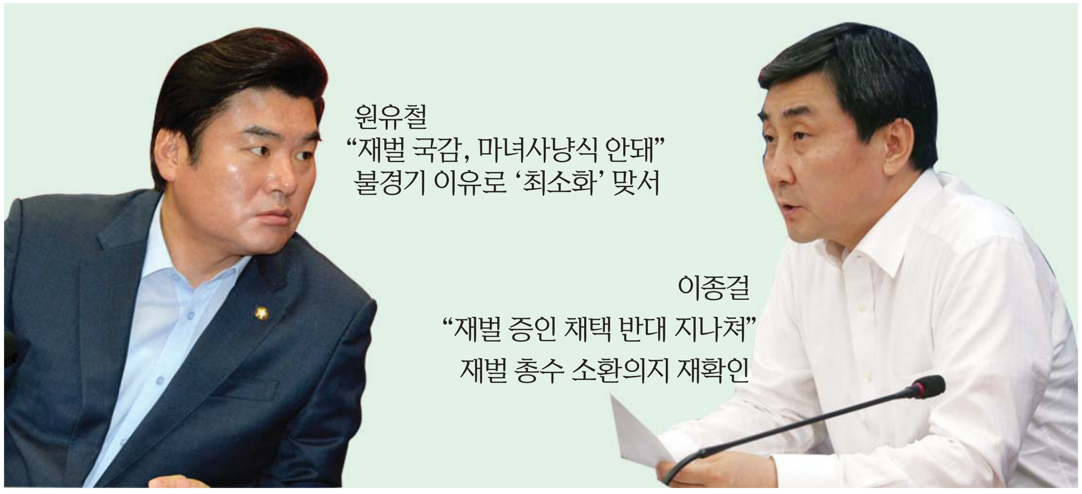
그는 "중국 내부에서 G2를 넘어서서 G1까지 겨냥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북핵 문제는 발전 궤적을 흐트러뜨릴 수 있는 아주 안 좋은 이슈이다. 불량국가라고 불리는 북한을 현 상태로 포용하는 것은 중국의 국제적인 평화를 위해서도 그렇게 좋지 않다는 내용은 아마 내부적으로 다 생각하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중국 인사들과 교류가 빈번한 북한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중국 관계자들을 만나면 '처형으로 피가 묻은 손을 잡을 수는 없지 않냐'는 말을 한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어 북중관계에 큰 변화가 있음을 확인해 주고 있다.

/송병형 기자

與 "재벌 증인 과도" 野 "증인 반대 과도"

신동빈·이재용 증인 요청 쇄도
중복 시 유사 사안 통합 제안도



원유철
"재벌 국감, 마녀사냥식 안돼"
불경기 이유로 '최소화' 맞서

이종걸
"재벌 증인 채택 반대 지나쳐"
재벌 총수 소환의지 재확인

'재벌 리스크'가 한국 경제를 뒤흔든 올해였지만 국정감사를 앞둔 국회의 모습은 여느 해와 다를 바 없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재벌 총수라도 예외일 수 없다며 실효성 있는 국감을 위해 필요한 사람은 모두 부르자고 하지만 새누리당은 경제가 어렵다는 이유로 재벌 총수 등의 증인 채택을 최소화하자고 맞서고 있다. 1일 현재 국회는 상임위원회 별로 증인 선정 작업이 한창이다.

전날 재벌 총수에 대한 증인 소환 의지를 밝혔던 이종걸 새정치연합 원내대표는 이날 자신의 의지를 재확인했다.

이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더 이상 재벌이 우리 경제에 성장의 활력을 주지 못하고 경제 침체의 맨 앞머리에 서 있다"며 "총력을 다해 이번 국감이 재벌 개혁 문제들을 실효성 있게 중점적으로 다루는 국감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각 상임위에서 총수를 비롯한 재벌들의 핵심 당사자들을 증인으로 신청하고 있는데 새누리당의 반대가 지나치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정부의 과도한 법인세 공제 혜택은 과도한 재벌 혜택"이라며 "재벌 기업에게 특혜를 몰아주며 형성된, 손쉽게 돈을 버는 안락한 구조는 재벌기업의 기업가 정신과 혁신·도전 정신을 앗아갔으며 그 결과 기업발 한국경제 위기론이 고개를 쳐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국은 이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뉴노멀 정책에 대해 이미 적응력을 상실했으며, 그 결과 현대차그룹과 삼성그룹마저 세계 시장에서 어렵다는 얘기가 들리고 있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노동시장의 불가피한 구조조정도 이 같은 기업위기에서 비롯됐다고 진단하기도 했다.

이 원내대표의 카운터파트너인 원유철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이날 방송에 나와 재벌 총수의 국감 출석 문제와 관련해 "문제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마녀사냥식이나 호통 국감, 갑질국감과 같은 것은 지양해야 할 때"라며 "충분히 논의하고 문제가 드러나면 당연히 저희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국감에 부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무엇이 문제인가와 관련해서는 "기준이 비정상의 경영이라든가 또 국민들의 공분을 사서 여러 가지 드러났던 회사의 문제점이라든가 이런 게 있다"며 "오늘도 상임위 별로 해당 기업, 해당 재벌, 문제점이 드러난 곳에 대해 토론을 하고 각각 증인을 채택하는 회의를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상임위 논의와 관련, 김정훈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동일 인물을 각 상임위에서 중복 신청했을 때 조율할 필요가 있다"며 "유사한 사안인 경우 여야가 상의해서 한쪽 상임위에서 질의를 하는 식의 편의는 필요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재벌 총수와 관련해서는 "각 상임위에서 재벌 회장들도 많이 신청을 한 것 같다"며 "원내 지도부에서 적절하게 조율을 할 것으로 안다" 고 말했다.

현재 각 상임위에서 가장 증인 요청이 많은 재벌 총수는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다. 정무위, 산업통상자원위, 기획재정위 등이 중복 요청 중이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정무위, 기획재정위는 물론 보건복지위에서도 중복 요청을 하고있다.

/송병형 기자 bhsong@metroseoul.co.kr

中, 보이스 피싱과 전쟁 선포

고강도 휴대폰 실명제 단행

보이스피싱 등 각종 범죄에 악용되는 대포폰(타인 명의로 개통한 휴대전화)을 근절하기 위해 중국 당국이 1일부터 엄격한 휴대전화 실명제 실시에 들어갔다. 최근 한국인이 중국으로 건너가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하는 등 대포폰을 악용한 범죄는 국경을 넘나들고 있어 한국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중국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중국 공업정보화부는 일선 이동통신사 영업점에 배치된 첨단장비로 신분증을 대조 검사해 실명확인이 되지 않으면 휴대전화 개통을 하지 못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차이나모바일, 차이나유니콤, 차이나텔레콤 등 3대 통신사는 신분증 번호와 휴대전화 유심(USIM) 카드의 명의를 일일이 대조한 뒤 휴대전화를 개통한다.

현재 타인 명의로 사용 중인 유심 카드는 본인 실명으로 바꾸지 않으면 사용이 제한된다. 전화나 문자는 받을 수 있지만 걸거나 보낼수는 없다. 일정기간동안 실명등록을 하지 않으면 전체 통화가 불가능하다. 일단 통신사들은 단계적으로 실명등록을 유도할 계획이다. 휴대전화 사용중단은 마지막에 고려한다는 방침이다. 공업정보화부는 올해 말까지 실명 등록 비율을 90%까지 달성하도록 주문했다.

중국은 무기명 또는 타인 명의의 유심 카드가 거리의 가판대에서 공공연히 거래될 정도로 대포폰이 활개를 치고 있다. 최대 통신사인 차이나모바일의 경우 전체 가입자의 16%에 해당하는 1억3000만명이 실명 인증을 받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환경으로 보이스피싱 등 대포폰을 악용한 범죄가 중국에서 극성을 부리고 있다. 지난해 1월 유명 배우인 탕웨이도 보이스피싱으로 약 3700만원가량의 피해를 입어 화제가 되기도 했다.

중국의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은 한국에까지 손길을 뻗치고 있다. 최근 한국과 중국에 걸쳐 100여명에 달하는 대규모 인원을 가동해 한국을 대상으로 조직적인 보이스피싱 범행을 저지른 범죄 조직의 일부가 검거됐다.

중국 당국의 이번 조치는 대포폰 범죄를 뿌리 뽑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송시우 기자 swsong@

대기업 등쌀… 자영업자 6명 중 5명 문 닫는다

음식점·소매업 초토화
생존율 20%도 밑돌아

자영업자들의 생존율이 20%가 안 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소매업과 음식업, 서비스업의 폐업률이 높게 나타나 대형마트의 골목상권 진출과 음식점 진출이 자영업자들을 폐업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일 국세청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심재철 새누리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04년부터 2013년까지 지난 10년간 자영업 창업자수는 949만명으로 이 중 폐업자수는 793만명에 달했다. 6명 중 5명 자영업자가 폐업을 하는 것이다.

대표적인 창업 아이템인 치킨집이나 카페 등 음식업은 10년간 187만2075개가 창업해 174만4138개가 폐업했다. 전체 폐업 가운데 음식업이 차지하는 비율이 22%로 가장 높았다. 다음으로 소매업과 서비스업이 각각 전체 폐업의 20.5%와 19.8%를 차지했다.

이 같은 상황은 대기업의 골목상권 진출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파악된다.

음식업의 경우 신세계는 계열사 신세계 푸드를 통해, 롯데는 계열사 롯데리아를 통해, CJ는 CJ푸드빌을 통해 각각 다수의 브랜드를 골목에 침투시키고 있다. 여기에 이랜드까지 가세해 4개 그룹이 시내 중심가는 물론 동네 골목까지 장악해 나가고 있다.

소매업의 경우 대기업의 대형마트가 골목상권까지 침해하며 줄 폐업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대형마트의 골목상권 침해를 막기 위해 SSM(기업형 슈퍼마켓) 규제법이 2012년 4월부터 시행됐지만 효과는 미미하다. SSM법이 시행되고 난 후인 2013년 소매업의 폐업 수는 17만333개로 시행 연도인 18만1239개와 비슷한 수준이다.

심 의원은 "위기의 자영업자를 반드시 구해낼 수 있는 정부의 실효성 있는 자영업자 지원대책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김성현 기자 minus@

경찰인지 '세리'인지… 교통범칙금 3년새 3배

올 7월까지 1000억원
연말 1800억원 달할 듯

박근혜 정부 출범 3년만에 경찰의 범칙금 부과가 종전의 3배가 될 전망이다.

1일 경찰청이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정청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2년 약 630억원이던 경찰청의 범칙금 부과 규모는 2015년 연말 1800억원에 육박할 전망이다. 올해 7월까지 범칙금 규모는 1000억원가량이다.

범칙금 규모는 2013년 1000억원가량이었고, 2014년 1400억원가량이었다. 2012년과 비교했을 때 2년만에 두배를 넘었다.

경찰청의 범칙금은 무인단속장비로 적발하고 부과하는 과태료와는 달리 교통단속을 하는 경찰관이 현장에서 부과한다.

정 의원은 "사고예방이라는 경찰 본연의 목적은 실종된 채 세수 부족을 메꾸기 위해 실적 위주의 함정단속을 정부가 장려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의심된다"며 "경찰은 인력 부족을 호소하면서도 예방 목적이 아닌 현장 단속에 경찰력을 필요 이상 투입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박근혜 정부 출범 직후부터 범칙금 부과가 눈에 띄게 증가했는데 해가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며 "담뱃세 인상 등 가뜩이나 힘든 서민경제에 주름살 펴질 날이 없다. 부자감세 및 세수부족의 짐을 서민에게 떠넘기고 있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송병형 기자

지방공기업 '임금피크제' 속도

행자부, 불참기업 경영평가 점수 깎는 등 도입 유도

모든 지방공기업의 임금피크제 도입계획이 이달 내 확정될 예정이다.

행정자치부는 지방공기업에 임금피크제를 강제할 수 없지만, 경영평가에서 불참 기업의 점수를 크게 깎는 방법 등으로 이 제도 도입을 유도할 방침이라고 1일 밝혔다.

전국 자치단체의 지방공기업 400곳 가운데 직영기업인 상하수도 기업 257곳과 청산 중인 충청남도 농축산물류센터관리공사를 제외한 142곳이 임금피크제 대상이다.

이 가운데 이미 8곳이 임금피크제를 전면·부분 도입했다.

경기도시공사, 광주도시공사, 부산도시공사, 대구도시공사, 부산지방공단스포원은 최상위직급을 중심으로 임금피크제를 일부 도입했다.

이들 5곳은 전 직급으로 임금피크제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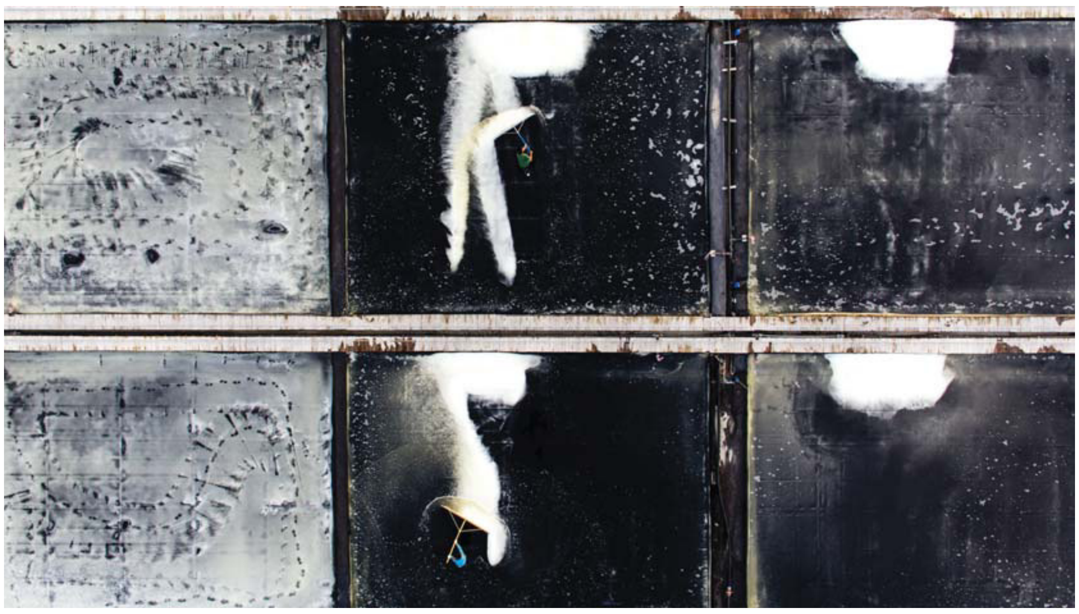
천안시시설관리공단, 청주시시설관리공단, 청송사과유통공사는 행자부 권고안에 따라 전 직급에 임금피크제를 적용하기로 했다.

경영평가에서 최하등급을 받은 지방공기업은 직원에 성과급이 지급되지 않는다.

행자부는 또 이행실적을 매주 점검해 결과를 인터넷에 공개하고, 부진한 기관에 컨설팅을 제공하기로 했다.

행자부는 오는 7일 지방공기업 최고경영자(CEO)들을 불러 임금피크제 도입을 독려할 방침이다.

/김서이 기자 redsun217@metroseoul.co.kr



조성준 작가, 드론 사진전 개최 사진작가 조성준씨가 '하늘의 시선, 드론으로 바라본 세상'을 오는 3일부터 10월 11일까지 서울 강남수 신사동 캐논 갤러리에서 개최한다. 조 작가는 지난 2년 동안 산업현장에서부터 도시, 농촌, 자연 등 대한민국의 변화하는 풍경을 무인 비행기인 드론을 이용해 촬영한 사진들을 전시한다. /뉴시스

檢 '포스코 비리' 정준양 前회장 소환조사

6개월여간 수사 마무리 단계
핵심 인물 영장 번번이 기각

오는 3일 정준양(67) 전 포스코그룹 회장의 검찰 조사를 끝으로 6개월여의 포스코 수사가 마무리될 전망이다.

1일 이 사건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조상준 부장검사)는 정 전 회장을 오는 3일 오전 10시에 검찰청사로 소환해 조사한다고 밝혔다.

정 전 회장이 검찰에 소환되는 것은 올해 3월 13일 포스코건설 압수수색을 시작으로 포스코 비리 수사가 본격화한 지 약 6개월 만이다.

검찰은 정 전 회장의 재임 기간인 2009년부터 지난해 사이에 포스코그룹에서 빚어진 각종 비리 의혹을 놓고 정 전 회장의 관여 여부를 집중 조사할 방침이다.

포스코그룹이 플랜트업체 성진지오텍의 지분을 비정상적으로 인수하는 데 영향력을 행사했는지가 우선 조사 대상이다. 성진지오텍 인수는 정 전 회장 시절의 대표적인 부실 인수·합병 사례로 꼽힌다.

포스코는 2010년 3월 성진지오텍 주식 440만주를 시세의 배(倍)에 가까운 주당 1만6331원에 사들였다. 당시 성진지오텍 최대주주로, 정 전 회장과 친한 것으로 알려진 전정도 세화엠피 회장은 지분매각 과정에서 막대한 시세차익을 남겼다.

포스코 측이 커다란 손실을 떠안게 된 성진지오텍 지분 인수 과정에 정 전 회장이 적극 개입했다면 배임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

검찰은 포스코건설이 협력사인 동양종합건설에 해외공사를 몰아주는 등의 특혜를 주는 데에도 정 전 회장이 관여했는지 조사할 계획이다.

포스코와 슬래브 등 철강 중간재를 거래하는 협력업체 코스틸에 정 전 회장의 인척이 고문으로 재직하며 4억원대의 고문료를 챙겼다는 의혹도 조사 대상이다.

검찰 안팎에서는 정 전 회장의 소환조사가 포스코 비리 수사의 마지막 단계가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검찰이 포스코 수사에 착수할 당시 막후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이명박 정부 실세들을 겨냥할 것이라는 전망이 많았으나 주요 길목마다 핵심 인물의 구속영장이 번번이 기각되며 수사 동력을 잃었다.

검찰은 100억원대 비자금 의혹의 핵심인물인 정동화(64) 전 포스코건설 부회장에 대해 수십억원대 배임 혐의로 5월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기각됐고, 보강조사를 거쳐 지난 7월 청구한 두 번째 구속영장 마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전 정권 실세들과의 친분을 배경으로 포스코에서 각종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배성로(60) 동양종건 전 회장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사기 등 7가지 혐의를 들어 영장을 청구했으나 기각됐다.

일각에서는 검찰이 정 전 회장 소환조사를 끝으로 수사를 마무리하고 이달 추석 연휴 전에 수사결과를 발표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연미란 기자 actor@

"부정부패 척결 총력··· 엄단해야"

김현웅 법무부 장관, 단속 강화 지시



김현웅(56·사법연수원 16기·사진) 법무부 장관이 "부정부패를 척결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법과 원칙에 따라 엄단해 주길 바란다"고 검찰에 당부했다.

김 장관은 1일 "부패와 부조리의 악순환을 차단하지 않고서는 경제 재도약과 지속가능한 성장은 요원하다"며 부정부패 사범 단속을 강화할 것을 지시했다.

김 장관은 "사회 전반에 뿌리 내리고 있는 고질적 적폐와 부정부패가 아직 근절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며 ▲공직비리 ▲중소기업인·상공인 괴롭히는 범죄 ▲국가재정 건전성 저해 비리 ▲전문분야의 구조적 비리 등을 척결해야 할 부정부패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김 장관은 그러면서 "부정부패를 척결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법과 원칙에 따라 엄단해 주길 바란다"며 "특히 유관기관과의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해 부정부패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특단의 조치를 강구해 달라"고 강조했다.

김 장관이 최근 인사에서 서울중앙지검 특수부에 검사 7명을 추가 투입한 것도 반부패사범 수사를 활성화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일각에서는 대검중수부 폐지 이후 약화된 특수 수사 역량 등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었다는 해석도 나온다.

정부는 지난 3월 이완구(65) 전 국무총리가 대국민담화를 통해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부정부패를 발본색원하겠다"고 밝힌 이후 반부패 개혁 기조를 한층 강화해오고 있다.

/연미란 기자

'뇌물수수' 기소된 비서실장 징역 2년

재판부 "수개월간 금품·향응 제공받은 죄질 불량"

경기도교육청이 추진하는 사업과 관련해 납품업체로부터 뒷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전 경기도교육감 비서실장 정모(45)씨가 2심에서도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1일 서울고법 형사1부(이승련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정씨의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2년과 벌금 4천만원, 추징금 3614만2500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등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수뢰액 중 일부는 교육감의 업무추진비 등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기도 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지만, 본분을 저버린 채 지위를 이용해 얻은 내부 정보 등을 업체 관계자들에게 알려주고 수개월간 금품과 향응을 제공받아 죄질이 불량하다"고 밝혔다.

이어 "교육감의 업무추진비를 마련하기 위한 동기에서 이 범행에 이르게 된 측면이 있다 해도 부족한 업무추진비를 수뢰액으로 충당하는 행위 자체가 직무의 엄결성을 해하는 것이어서 용인될 수 없다. 이 범행으로 경기도교육청이 추진하는 각종 사업의 공정성과 사회의 신뢰가 크게 훼손됐다"며 정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정씨는 2012년 12월부터 이듬해 9월까지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사업과 교육용 소프트웨어 납품에 영향력을 행사해주는 대가로 관련 업체 대표 2명에게서 4990여만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수수한 혐의로 지난해 11월 기소됐다.

그러나 법원에서는 수뢰액으로 3614만2500원만 인정됐다.

정씨는 교육행정공무원 출신으로 뇌물은 모두 전임 김상곤 교육감의 비서실장으로 근무할 당시 받았다. 지난해 7월 이재정 교육감이 취임한 뒤에도 비서실장을 맡았다가 지난해 10월 검찰에 구속되면서 대기발령을 받았고 재판에 넘겨지면서 직위해제됐다. /연미란 기자

metro 메트로신문사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TEL:02)721-9800, FAX:02)730-1551

발행·인쇄인	남궁호
사장·편집인	김종학
편집국장	강세준
광고문의	02)721-9851,3
독자센터	02)721-9861

2002년 5월 31일 창간/등록번호 서울특별시 가00206

감사관, 임신 女직원 폭언논란

과거에도 음주 감사 논란에 성추행 의혹 있어

서울시교육청 감사관이 임신 여직원에 폭언을 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앞서 그는 음주 감사 논란을 일으키고 부하직원 성추행 의혹으로 물의를 빚은 바 있다.

서울시교육청일반직공무원노조는 1일 성명을 내고 지난 8월 25일 공립 고교 교사들의 학내 성추행 사건을 조사 중인 한 여직원이 임신에 따른 휴직을 신청하자 김모 감사관이 다른 직원들이 보는 앞에서 폭언했다고 주장했다.

이점희 교육청일반직공무원노조 위원장은 "감사관이 해당 여직원에게 징계 운운하며 휴직을 허가하지 않겠다고 했다"며 "휴직을 해도 일을 하라면서 소리를 지르며 폭언을 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를 말리는 다른 직원에게도 폭언했다는 증언을 여러 명으로부터 들었다"고 덧붙였다. 해당 여직원은 이날 휴직에 들어갔다.

이런 주장에 대해 김 감사관은 "100% 날조"라며 일일이 대응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그는 사립유치원 감사과정에서 제기된 사학법인과 감사관실 직원 간의 유착 의혹에 대해 해당 여직원을 추궁하자 다른 직원들이 자신을 음해하려고 허위 사실을 들고 나왔다며 "인격 모독이자 명예훼손"이라고 반박했다.

음주를 한 뒤 폭언을 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전혀 술을 마시지 않았다"며 허위 사실이라고 말했다.

김 감사관은 공립 고교 성추행 사건의 피해 여교사들을 면담하기 전 술을 마신 사실이 드러나면서 '음주 감사' 논란에 휩싸였고 이후에도 그에 관한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그는 회식 자리에서 직원들에게 폭언을 일삼았다는 직원들의 증언 등이 언론에 보도되자 당분간 술을 입에 대지 않겠다며 금주 선언을 하기도 했다.

감사관실 직원들과 갈등을 빚는 과정에서 여직원의 손을 강제로 더듬는 등 성추행을 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서울교육청은 공립 고교 성추행 사건 특별감사 과정에서 감사관과 직원들 간에 빚어진 일련의 내부 갈등 등에 대해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한 상태다.

/김서이 기자

'정치개입 댓글' 징역 5년 구형

前심리전단장 항소심서

검찰이 지난 대선 당시 인터넷 댓글로 정치에 관여한 혐의 등으로 징역 2년형을 받은 이모(61) 전 국군사이버사령부 심리전단장의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2부(김용빈 부장판사) 심리로 1일 열린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이같이 재판부에 요청했다.

군 사이버사령부 소속 530단장이었던 이 전 단장은 지난 대선 전후 사이버사 소속 121명과 공모해 1만2844회에 걸쳐 인터넷에 특정 정당이나 정치인을 비판 또는 옹호하는 댓글을 다는 등 정치적 의견을 공포한 혐의(정치관여 등)로 기소됐다.

지난 5월 1심은 검찰의 기소 내용을 모두 인정해 이 전 단장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지난달 10일 건강상의 이유를 들어 그의 보석을 허가했다.

이 전 단장은 최후진술에서 "의도적으로 정치에 개입했다면 일반 누리꾼 수준의 댓글 활동을 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모든 국가가 사이버심리전을 하고 있지만 이번 수사와 보도로 우리 심리전 부대는 식물조직이 됐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추후 선고기일을 정하기로 했다.

/김서이 기자 redsun217@metroseoul.co.kr



17년째 저소득 노인에 수의 기증 부산에 사는 저소득층 홀몸 노인을 초청해 감사의 마음을 표하는 '홀로 어른 위로 대잔치'가 1일 오후 부산 부산진구 롯데호텔 3층 아트홀에서 서병수 부산시장과 송용덕 부산롯데호텔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부산여성소비자연합 등이 공동으로 마련한 이 행사는 1990년 5월 처음 시작한 후 올해로 17회를 맞았다. 유대근 보성삼베 대표가 16년간 13억1000만원 상당의 수의를 기증했다. 올해도 8000만원의 상당 수의 100벌을 기증했다. /연합뉴스

法 '며느리 추행' 시아버지, 징역 2년6개월

사실 방관·폭행 일삼은 남편은 벌금형

며느리에게 입을 맞추는 등의 추행을 하고는 "며느리가 아들과 이혼소송에서 이기려고 한 거짓말"이라며 잡아뗀 시아버지가 끝내 법정에서 구속됐다. 이 같은 사실을 알고도 방관하고 폭행을 일삼은 남편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1부(김경 부장판사)는 며느리 A씨를 추행한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장모(61)씨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1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장씨는 A씨가 아들과 함께 자신의 집에 들어와 살기 시작한 2011년 12월부터 분가한 2013년 6월까지 출근 인사를 핑계로 A씨를 껴안는 등 추행했다.

A씨는 그런 시아버지의 행동이 싫었지만 가정을 지키고 싶어 분가해 나올 때까지 참았다.

분가한 지 두 달 정도 지난 2013년 8월 9일 A씨는 시어머니로부터 "네 시아버지가 손자를 보고 싶어한다"는 연락을 받고 다음날 아이와 함께 시댁을 찾았다.

그러나 시댁에는 장씨 혼자 있었고, 다시 추행이 시작됐다.

장씨가 A씨와 대화를 나누다가 "친딸처럼 예뻐하는 것 알지? 한 번 안아보자"라며 A씨를 포옹하고는 "내 무릎에 앉으라"고까지 했다.

A씨는 남편으로부터도 폭행에 시달렸다.

남편 장씨는 2013년 9월 임신 중이던 A씨에게 "뱃속의 아이를 쳐서 죽이겠다"는 등의 폭언을 하며 머리와 엉덩이 등을 때렸다.

이들 부부의 불화가 심해져 그해 11월 아들 장씨가 A씨에 대해 이혼소송을 제기한 데 이어 작년 7월 둘째 아들에 대해 친생자 부인 소송을 내자 A씨도 바로 이혼 맞소송을 내고 장씨 부자를 경찰에 신고했다.

남편 장씨도 폭행 등 혐의가 인정돼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다. 유전자 감정 결과 A씨의 둘째 아들은 남편 장씨의 친자로 밝혀졌다.

/연미란 기자 actor@

檢 '문희상 처남 취업청탁 의혹' 조양호 소환

검찰이 문희상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의 처남 취업 청탁 의혹 수사 과정에서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을 전격 소환해 조사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남부지검 형사5부(최성환 부장검사)는 1일 오전 9시쯤 조 회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변호인 입회하에 조 회장을 상대로 이번 사건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조사하고 있다"며 "조사는 밤늦게까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조 회장은 2004년 고교 선배인 문 의원의 부탁으로 문 의원의 처남을 미국 회사인 브릿지 웨어하우스 아이엔씨에 컨설턴트로 취업시켰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 업체는 캘리포니아 주 롱비치의 컨테이너 수리업체로, 문 의원 처남은 이곳에서 실제 근무도 하지도 않았지만 2012년까지 74만7000달러(약 8억원)의 월급을 챙긴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조 회장을 상대로 실제로 문 의원의 청탁을 받고 그의 처남을 취업시켜줬는지, 그가 일하지도 않았는데 보수를 지급했는지 등을 확인할 방침이다.

앞서 한진그룹은 이 회사와는 아무런 관련도 없다고 주장한 바 있다.

그러나 회사 주소가 한진해운 국제터미널과 같은 '롱비치 한진로드 301'로 돼 있어 한진그룹이 실질적으로 소유한 회사가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지난해 12월 보수성향 시민단체인 한겨레청년단은 이와 같은 의혹을 규명해 달라고 문 의원을 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고발장을 검토한 검찰은 지난 6월 대한항공과 한진해운의 재무팀, 한진 법무팀 등을 압수수색하며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이어 지난 7월에는 '집사'라 불릴 정도로 조 회장의 최측근으로 꼽히는 한진해운 석태수 사장과 한진 서용원 대표 등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이미 문 의원의 처남과 부인, 브릿지 웨어하우스 측 관계자들에 대한 조사를 마친 상태다.

검찰은 조 회장 조사가 일단락되는 대로 문 의원에 대한 소환 조사를 검토할 방침이다.

/김서이 기자

檢 '빌린돈 10억대 가로챈' 크라운제과 회장 친조카 추가 기소

회사 상임고문 소개로 만난 사람을 속여 수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횡령)로 윤영달 크라운제과 회장의 조카가 추가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조사2부(부장검사 신호철)는 윤모(40)씨를 이 같은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고 1일 밝혔다.

앞서 지난해 윤씨는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현재 서울중앙지법에서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2013년에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징역 2년이 선고된 뒤 지난 2월 관결이 확정됐다.

검찰에 따르면 윤씨는 2010년 8월 서울 성동구 한 카페에서 자신의 회사 상임고문 소개로 만난 정모씨에게 "회사 운영자금이 급히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2달 정도 사용하고 바로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한 뒤 이때부터 2012년 5월까지 7차례에 걸쳐 모두 7억2900만원을 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김서이 기자

우리 것이 좋은 것이야~

신토불이 한가위

한우불고기 세트, 콤보 및 빅불 세트 구매 시 즉석 경품권 증정





[1등 장수 진심 명품 한우_50명]



[2등 친환경 울릉도 더덕세트_100명]



[3등 풍기 인삼 혼합세트_200명]



[4등 경북 의성 사과세트_300명]



[5등 철원오대미 5kg_1350명]

[6등 리치버거 1+1_5만명 / 7등 치즈스틱 1+1_5만명 / 8등 콜라 500원]

※ 상기 이미지는 실제 제품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제휴카드 및 L.POINT카드 할인 제외 / 홈서비스 및 타 행사 중복 제외 / 일부점포 제외 / 즉석 경품권은 조기소진될 수 있습니다. / 경품 콜라는 리필 불가

판례로 보는 만화형법

글:강세준
그림:까시
kkasy.co.kr

<9화 과잉방위>

대법원 2000.3.28.선고 2000도228

제21조(정당방위) ①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②방위행위가 그 정도를 초과한 때에는 정황에 의하여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③전항의 경우에 그 행위가 야간 기타 불안스러운 상태하에서 공포, 경악, 흥분 또는 당황으로 인한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299조 '메가뱅크' 등장… "혁신" 천명

KEB하나은행 공식 출범

조기통합 선언 1년2개월만

전국지점 945곳 '리딩뱅크'

국내 최대 규모의 '메가뱅크'인 KEB하나은행이 1일 공식 출범했다.

김정태 하나금융 회장이 지난해 7월에 하나·외환은행의 조기통합을 선언한 지 1년2개월 만이다.

KEB하나은행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을지로 본사(옛 외환은행 본사)에서 하나·외환 통합은행 출범식을 개최했다.

KEB하나은행의 이름은 외환은행의 영문명 약자인 KEB(Korea Exchange Bank)와 하나은행을 조합해 만들었다.

앞서 하나금융은 지난 2012년 2월에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로부터 외환은행을 인수한 뒤 지난해 7월에 하나·외환은행의 조기통합을 선언했다.

KEB하나은행의 올해 상반기 자산은 연결 기준으로 299조원에 달한다. 우리은행(287조원)과 국민은행(282조원), 신한은행(273조원)을 앞지른 1위 규모다.



1일 공식 출범한 KEB하나은행 서울 중구 을지로 본사에서 열린 출범식에서 김정태 하나금융 회장(왼쪽에서 두번째), 함영주 KEB하나은행장(왼쪽 네 번째)과 김근용(맨 오른쪽)·김창근 노조위원장이 직원대표와 함께 '1등 은행'이 될 것을 다짐하며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해외지점도 20곳으로 시중은행 중 가장 많다.

KEB하나은행은 국내 지점 945곳과 직원 1만6368명으로 두 부문에서 국민은행에 이은 2위권으로 도약해 국내 '리딩뱅크' 대열에 합류하게 됐다.

KEB하나은행은 하나은행의 인재개발부와 외환은행의 경영기획부를 합친 변화추진본부를 설립하고 임직원들의 화학적 통합에도 주력할 계획이다.

함영주 KEB하나은행장은 "변화와 혁신이 중요한 시기"라며 "외형뿐 아니라 내실까지 갖춘 리딩뱅크를 달성한 후 글로벌 은행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또 "중소기업과 소호 여신을 획기적으로 늘려 진정한 통합 은행의 모습으로 고객들에게 다가서겠다"고 다짐했다.

이런 가운데 외환 업무의 절대강자였던 외환은행은 48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외환은행은 1967년에 외국환 전문은행을 설립하겠다는 정부의 정책에 맞춰 한국은행 외환관리과에서 독립해 출범했다.

정부가 본격적으로 수출드라이브를 건 1970~1980년대에 국내 기업들의 해외시장 개척을 지원하며 외환과 무역금융에서 독보적인 활약을 펼쳤다.

이어 1976년에 국내 최초로 온란인 보통예금을 취급하고 1978년에 처음으로 신용카드 업무를 개시했다. 외환은행법이 폐지되면서 1989년에 일반은행으로 전환됐다.

외환위기를 거치면서 1999년에 최대주주가 한국은행에서 코메르츠 방크로 바뀌었고 2003년에는 미국계 론스타펀드에 인수됐다.

/김보배 기자 bobae@metroseoul.co.kr

中 경기 부진… 亞 증시 나란히 미끄러져

코스피, 1930선 맴돌다 급락

日 닛케이 지수도 3.95%↓

중국발 경기후퇴 우려가 재차 불거지면서 코스피를 비롯해 중국 일본 등 아시아 증시가 나란히 약세를 보였다.

코스피는 1일 27.26포인트(1.40%) 내린 1,914.23에 장을 마감했다. 지수는 전일보다 7.05포인트(0.36%) 내린 1,934.44로 출발해 1,930선 안팎에서 맴돌다 중국 제조업 지표 부진에 따른 경기둔화 우려가 불거지며 급락세로 돌아섰다.

중국 국가통계국은 이날 8월 제조업 구매관리자지수(PMI)가 49.7로 집계됐다고 발표했다. 이는 시장 전망치와 일치하지만 전월(50.0%)보다는 낮아진 것으로, 2012년 8월(49.2) 이후 3년 만에 최저 수준이다.

상하이종합지수도 1.23%하락한 3166.62로 거래를 마쳤다. 일본 닛케이225 지수 역시 오후 들어 급락세를 보인 끝에 3.95%(724.79포인트) 떨어진 13,267.48로 마감됐다.

중국은 전날 증권감독관리위원회 등 4개 부처가 공동으로 자사주 매입을 독려한 데 이어 이날도 1500억 위안의 유동성을 공급하는 등 연일 증시 부양책을 내놨지만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

이날 코스피 시장에서는 기관들이 14거래일만에 '팔자'로 전환, 2771억원 어치의 매물을 쏟아내며 지수를 끌어내렸다. 외국인은 62억원 어치를 내다 팔며 19거래일 연속 '셀 코리아'를 이어갔다.

/구자익 기자 jikoo8598@

국내 첫 '액티브 X' 없는 인터넷 뱅킹

KB국민은행

OTP 이용고객 대상 서비스

KB국민은행은 1일 오후 7시부터 OTP 보안매체를 사용하는 인터넷뱅킹 고객은 금융권 최초로 액티브X가 필요 없는 웹표준(HTML5) 방식의 인터넷뱅킹을 이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현재 국내 인터넷뱅킹 환경은 액티브X, NPAPI 기반의 공인인증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해야만 이용할 수 있으며, 이를 지원하지 않는 최신 웹표준 브라우저에서는 인터넷뱅킹을 이용할 수 없다.

하지만 국민은행 인터넷뱅킹 고객 중 OTP 보안매체를 사용하는 고객은 윈도우10 엣지, 구글 크롬에서 별도의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지 않고도 웹브라우저에 인증서를 저장한 후 편리하게 인터넷뱅킹을 이용할 수 있게 된 것. 다만 보안카드를 사용하는 고객은 추가적인 보안프로그램 도입 전까지는 단순조회 거래만 이용할 수 있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현재는 OTP 이용고객 대상으로만 별도의 보안프로그램 설치 없이 인터넷뱅킹 이용이 가능하지만 올해 말까지 액티브X가 필요 없는 보안프로그램 도입이 완료되면 모든 인터넷뱅킹 이용고객에게 확대 적용할 계획"이라며 "이번에 첫 도입한 웹표준(HTML5)기반의 공인인증서비스를 인터넷 익스플로러(IE)크롬, 파이어폭스, 사파리 등 다양한 웹표준 브라우저에 확대 적용하고, 복잡한 각각의 보안프로그램 설치를 단일화해 인터넷뱅킹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김보배 기자



0~110세까지… 자녀 생애설계

롯데손해보험

롯데손해보험은 평균수명이 연장됨에 따라 최대 110세까지 보장 받을 수 있는 '롯데 사랑 Dream 자녀보험'을 1일 출시했다.

'롯데 사랑 Dream 자녀보험'은 어린이에게 많이 발생하는 폐렴, 천식 등 12대 다발성 질환 입원비와 다발성 소아암 진단비를 담보한다. 특히 아토피 피부염, 중이염, 축농증 등 면역력 저하로 걸리기 쉬운 대표적인 환경성 생활질환들을 집중 보장, 해당 질환으로 입원시(3일 초과시) 보험금을 지급하고 암·뇌혈관질환 등 성인관련 질병도 0세부터 최대110세까지 집중 보장한다.

또 치아관리의 중요성이 커짐에 따라 영구치에 대한 보철치료 및 보존치료, 유치의 보존치료를 보장하며, 임플란트나 틀니 치료시 치아 당 100만원, 브릿지 치료 시 치아 당 50만원을 보장한다.

자녀가 상해 또는 질병으로 80%이상 후유장해 시 차회 이후의 비 갱신 보장보험료에 대해서는 납입면제를 받을 수 있으며, 계약자인 부모가 상해 또는 질병으로 80% 이상 후유장해를 입을 시에는 '기 납입 보험료'와 '향후 납입할 보험료' 상당액을 지원 받을 수 있다.

보험료 혜택도 다양하다. 2명 이상의 다자녀가정이 가입 시 보험료의 1~2%를 할인해주고, 당사 장기보험 가입자가 자녀보험에 가입할 때 보험료를 1%에서 최대 3%까지 할인해준다.

보험만기는 30세와 110세로 자유롭게 선택 가능하며 보험료는 처음 가입한 금액 그대로 만기까지 유지되는 비갱신형으로도 가입할 수 있다. /김보배 기자

노량진 수산시장 복합리조트 사업 '원점'

문광부 주관사업서 서울 제외 수협중앙회, 자체개발 재검토

수협중앙회가 '노량진 수산시장 유휴부지 복합리조트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기로 했다.

노량진 수산시장을 최적의 복합리조트로 개발하는 계획을 새로 수립한다는 것이다.

수협중앙회는 1일 자체 개발을 통해 '노량진 수산시장 유휴부지 복합리조트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주관하는 복합리조트 사업에서 서울이 사업대상지역에서 제외됐기 때문이다.

앞서 서울지역에서는 수협중앙회가 단독으로 제안서를 제출했다.

노량진 수산시장을 싱가포르의 '마리나베이센즈'나 '리조트월드 센토사'와 같은 복합리조트로 건설하겠다는 게 수협중앙회의 계획이었다.

김임권 수협중앙회장과 임직원 등은 이날 본부청사 10층에서 열린 프로젝트 사업 회의를 열고 향후 추진계획을 논의했다.

이들은 노량진시장의 매력과 한강조망입지, 교통여건 등 노량진부지가 보유한 잠재력을 극대화하면서 관광산업을 육성하고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데 부응할 수 있는 시설들을 새로 구상하기로 했다.

당초 복합리조트에 들어설 것으로 예상됐던 카지노는 특허사업이기 때문에 계획에서 제외되고 박물관과 수족관 설립 계획도 재검토된다.

반면 여의도·용산의 비즈니스와 면세점을 통한 관광 수요를 흡수·보완할 수 있는 시설인 호텔이나 컨벤션 센터 등의 건립은 기존대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당초 수협중앙회는 노량진 수산시장 현대화 사업으로 4만8233㎡의 대규모 부지를 확보한 뒤 1조 2943억원을 들여 지상 52층, 지하 6층 규모의 복합리조트를 개발한다는 계획이었다.



노량진 수산시장 복합리조트 조감도. /수협중앙회 제공

이를위해 수협중앙회는 그동안 해외 관광객 80.9%가 서울을 방문하고 공항과 직통으로 연결되는 점, 노량진 수산시장과의 연계성을 강조해왔다.

특히 노량진역을 통한 지방여행 분산 가능성과 여의도-용산 연계를 통한 관광 유발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수협 관계자는 "올해 안에 노량진 수산시장 기본 개발계획을 수립해 공공기여 등 서울시와 사업추진에 대한 구체적인 사전협상을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복합리조트는 일정 규모 이상의 부지에 카지노와 숙박시설, 국제회의시설, 테마어트랙션, 쇼핑시설, 엔터테인먼트 시설 등을 선택적으로 포함하고 있는 목적지 리조트다.

/구자익 기자 jikoo8598@metroseoul.co.kr



평택 '자이더익스프레스' 조감도. /GS건설 제공

'자이더익스프레스' 1차 물량 '완판'

GS건설 1849가구 100% 계약

GS건설이 분양하는 경기도 평택의 '자이더익스프레스' 1차 분양물량이 한 달 만에 완판됐다.

1일 GS건설에 따르면 경기도 평택에서 분양하는 5700여 가구 규모의 '자이더익스프레스'의 1차 물량 1849가구가 1개월 만에 100% 계약을 마쳤다.

이는 KTX개통과 삼성산업단지 착공 등 풍부한 개발호재와 신평면 설계 등의 차별화된 상품으로 인기를 끌었기 때문이라는 게 GS건설 관계자의 설명이다.

앞서 '자이더익스프레스'는 청약접수에서도 최고 경쟁률 36.5대1로 전평형이 순위 내에서 마감됐다.

특히 서울과 수도권 투자수요가 대거 몰린 것으로 분석됐다. 1순위와 2순위를 합친 수도권 청약 접수건은 전체(8천585건)의 32%를 차지했다. 선착순 분양에서도 잔여물량의 54%가 평택 이외의 지역에서 계약자가 나왔다.

정광록 GS건설 분양소장은 "KTX개통 이후 천안아산역 및 광명역 일대 가격 상승에 대한 학습효과로 수도권은 물론 전주와 광주, 대구 등 광역 수요자들의 계약이 이뤄졌다"고 말했다.

한편 오는 11월에 분양 예정인 '자이더익스프레스' 2차는 전용면적 59~113㎡ 규모의 1459가구로 구성된다. /구자익 기자

국내 건설사, 정부 지원대책에도 경영실적 악화

128곳 상반기 경영평가 매출액 전년比 5.9%↓

2015년 상반기 건설업 주요 경영지표

경영지표	2014				2015		증감 (전년동기)
	1/4	상반기	3/4		1/4분기	상반기	
건설매출액 증가율	5.0	1.4	3.2	-1.5	-4.5	-5.9	Δ7.3%p
유동비율	120.2	123.4	119.9	121.6	120.8	117.3	Δ5.5%p
부채비율	176.4	163.8	175.8	150.3	168.6	170.3	Δ3.5%p
매출액영업이익율 (건설전문업체)	1.9	0.7 (0.7)	1.0	0.9	1.6	-2.7 (1.9)	Δ3.7%p (1.2%p)

단위 : %

건설회사들의 올해 상반기 수익·안정성 지표가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적극적인 건설·부동산 경기 활성화 방침에도 매출이 감소하는 등 대부분의 경영지표에서 좋지 않은 성적을 냈다.

1일 대한건설협회에 따르면 국내 건설회사 128곳의 올해 상반기 경영성과를 분석한 결과, 부채비율과 유동비율, 영업이익, 순이익 등이 전년보다 악화됐다.

매출액은 64조2000억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5.9% 감소했다.

지난해까지 호황을 누렸던 해외공사 부문의 기저효과 등이 영향을 끼쳤다는 분석이다.

안정성 지표를 나타내는 부채비율은 170.3%로 전년동기 보다 6.5%포인트 상승했고 유동비율은 117.3%로 전년동기 보다 6.1%포인트 내려갔다.

영업익율은 마이너스 2.7%로 전년동기(0.7%) 대비 적자 전환됐다. 세전순익율도 마이너스 4.2%로 전년동기보다 2.9%포인트 하락했다.

이는 조선업을 겸업하고 있는 일부 대기업의 실적부진에 따른 결과라는 게 건설협회 관계자의 설명이다.

전문건설업체의 영업익율은 지난해 상반기보다 1.2%포인트 증가한 1.9%로 조사됐다. 이자보상비율은 202.2%로 지난해(40.5%)보다 161.7%포인트 개선됐다.

건설협회 관계자는 "건설회사들은 올해 매출액 감소 등으로 고전하고 있다"며 "저유가와 유로화, 엔화 약세, 미국 금리 인상 여부 등의 변수에 따른 다양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구자익 기자

LH '뉴스테이' 사업자 경쟁률 2.5대 1

주중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뉴스테이'로 불리는 기업형임대주택 민간사업자 공모 경쟁률이 2.5대1의 경쟁률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1일 화성동탄2 구역의 기업형 임대리츠 사업자 선정 공모에 롯데건설·대한토지신탁 컨소시엄이 단독으로 들어왔다고 밝혔다.

충북혁신에서는 우미건설·KB부동산신탁, 범양건영·한국토지신탁, 대원·코람코자산신탁, 서희건설·이베스트증권 등 4개 업체가 사업신청서를 제출했다.

당초 1차 공모는 경쟁률이 1.7대1에 불과했지만 이번에는 평균 2.5대1의 경쟁률을 나타냈다.

특히 1차 공모에는 건설사 단독 참여가 많았지만 2차 공모에는 건설사와 자산관리회사(AMC) 또는 금융투자자(FI)간의 컨소시엄이 대부분이다.

이는 리츠(REITs) 구조의 사업의 실행력이 높아진 것이라는 평가다.

LH는 이번 주 중으로 평가위원회를 열고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이어 기금출자심사와 토지매매계약, 인허가 및 착공 등 후속절차도 신속히 진행할 예정이다.

/구자익 기자

스마트워치 전쟁 2막… 애플워치 대항마 출격

IFA 앞두고 삼성·LG전자 신제품 속속 공개


삼성전자의 '삼성 기어 S2'(왼쪽)와 LG전자의 'LG 워치 어베인 럭스'.

삼성전자와 LG전자가 국제가전 박람회(IFA)를 앞두고 스마트워치 신제품 공개를 예고하면서 스마트 워치 시장을 두고 양사와 애플의 대결이 뜨거워질 전망이다.

시장조사기관 스트레티지 애널리틱스(SA)에 따르면 올해 2분기 애플은 애플워치를 400만대 출하했다. 애플워치의 시장점유율은 75.5%로 사실상 스마트워치 시장의 패권을 장악했다.

삼성전자와 LG전자는 스마트워치 신제품을 공개해 애플 추격을 노린다.

삼성전자는 IFA 개막에 앞서 오는 3일 독일 베를린에서 쇼케이스 행사를 통해 '삼성 기어 S2'를 공개한다.

'삼성 기어 S2'의 운영체제는 타이젠이며 원형 디자인과 원형 UX(사용자경험)가 적용됐다.

이 제품은 블루투스로 스마트폰과 연동할 수 있으며, 연동된 스마트폰과 떨어져 있을 때에도 와이파이 또는 3G를 통해서 계속 이용할 수 있다.

'삼성 기어 S2'는 근거리 무선 통신(NFC) 기반의 모바일 결제 서비스를 제공하지만 마그네틱 보안 전송(MST) 방식은 지원하지 않는다. 삼성전자의 '삼성페이'가 여타 모바일 간편 결제 시스템과 차별화될 수 있었던 요소가 빠진 것이다.

'삼성 기어 S2'는 '기어 S2'와 '기어 S2 클래식' 2종으로 출시된다. '기어 S2'는 다크 그레이와 실버 등 두 색상, '기어 S2 클래식'은 블랙 색상이 출시된다.

'기어 S2', '기어 S2 3G', '기어 S2 클래식'의 배터리 용량은 각각 250mAh, 300mAh, 250mAh으로 무선 충전 기능을 탑재했다.

LG전자 역시 IFA에서 스마트워치 'LG 워치 어베인 럭스'를 공개한다.

이 제품은 지난 4월 출시된 'LG 워치 어베인'의 럭셔리 에디션으로 안드로이드 웨어 운영체제를 탑재해 iOS 기반의 기기들과도 호환이 가능하다.

'LG 워치 어베인 럭스'는 전문 세공인들이 약 50단계의 공정을 거쳐 23K 금을 시계 몸체에 입혔다. LG전자는 이 제품에 시리얼 번호를 새겨 500개 한정판으로 제작할 예정이다.

'LG 워치 어베인 럭스'의 배터리 용량은 410mAh이며 소비자 판매가는 약 1200 달러다.

/임은정 기자 eunj71@metroseoul.co.kr



삼성전자 모델들이 '삼성전자 S 골드러시 구형 TV SUPER 보상판매' 행사 모델인 UHD TV를 소개하고 있다. LG전자 모델이 LG전자 베스트샵 강남 본점에서 LG전자 올레드 TV 특별가 체험이벤트를 소개하고 있다. /삼성전자·LG전자 제공

삼성·LG전자, TV시장 가격경쟁 나서

보상판매·이벤트 등 할인 프로모션 진행

삼성전자와 LG전자가 TV시장 점유율을 끌어올리기 위해 가격 경쟁에 나선다. 양사는 1일부터 SUHD TV와 올레드 TV를 보다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프로모션을 진행한다.

삼성전자는 '삼성전자 S 골드러시 구형 TV SUPER 보상판매' 행사를 이날부터 10월 31일까지 보상 대상을 늘려 연장 실시한다. 이번 행사는 구매 품목이 기존 55형 이상 SUHD·UHD TV에서 48인치 이상과 6900시리즈 이상으로 확대됐으며 LCD·PDP·LED·프로젝션TV에 브라운관 TV까지 추가해 구형 TV를 반납하는 고객에게 최대 20만원의 추가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특히 100만원대의 UHD TV뿐만 아니라 지난 7월 출시한 200만원대의 50형 SUHD TV (JS7200) 모델도 보상 판매 대상에 포함시켜 SUHD TV 11 개 전 모델이 행사 대상이다. 브랜드와 제조일자, 크기에 상관없이 모든 구형 TV 제품을 반납 가능하다.

LG전자는 이날부터 30일까지 전국 판매점에서 '특별가 체험이벤트'를 진행한다. 이 행사의 대상은 올레드 TV, 슈퍼 울트라HD TV, 울트라HD TV 등 프리미엄급 제품 30여 종이다.

특히 최고 프리미엄 제품인 올레드 TV의 혜택은 파격적이다. 행사 기간에는 소비자들이 캐시백, 카드 할인 등 특별가 혜택을 적용한 55형 올레드 TV(55EC9310)를 339만원에 구매할 수 있다. 55형 울트라 올레드 TV는 특별가 혜택을 적용하면 곡면디자인(55EG9600)과 평면디자인(55EF9500)이 각각 490만원, 450만원이다. 현존하는 최고화질의 울트라 올레드 TV가 인치당 가격이 처음으로 10만원 밑으로 내려갔다. 올레드 라인업 중 최대 크기인 77형 울트라 올레드 TV는 특별가 혜택만 400만원에 달한다.

/양성운 기자 ysw@

최근 3년 이통사 불법행위 50여건

과징금만 3200억원

최근 3년간 방송통신위원회가 이동통신 3사에 내린 제재건수는 49건, 과징금은 32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최민희 의원이 방송통신위원회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2년부터 2015년 현재까지 방통위에 가장 많은 과징금을 낸 곳은 SK로 18건의 제재와 과징금 1866억 6300만원, 7일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뒤를 이어 KT는 17건의 제재와 742억8900만원의 과징금을 받았고, LGU+는 14건의 제재, 554억900만원의 과징금과 함께 7일의 영업정지를 받았다. 이처럼 3사의 과징금 액수가 다른 이유는 시장지배적 사업자인 SK텔레콤의 경우 과징금 산정 시 액수가 올라가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불법 행위는 단말기 유통과 관련된 전기통신사업법이나 단말기유통법 위반 이슈였다.

구체적으로는 SK는 ▲SK네트웍스 외국인 불법 선불폰 개통사건이 사실로 드러나면서 35억6000만원의 과태료를 물었고 ▲결합상품의 허위 과장 광고로 3억5000만원 ▲개인정보 목적 외 이용 3억6000만원 ▲중고폰 선보상제로 인한 지원금 과다지급 9억3000만원 등의 제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KT와 LGU+ 역시 ▲중고폰 선보상제 관련 지원금 과다 지급으로 각각 8억7000만원과 15억9000만원 ▲외국인 명의 도용 선불폰 관련 5000만원 · 900만원 ▲결합상품 관련 허위과장 광고로 각각 3억5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가 받았다.

최 의원은 "이통사들의 불법행위를 줄이기 위해서는 반복된 위법행위에 대해 제재 상한선에 해당하는 과징금이나 영업정지 등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문경 기자 hm0108@

SKT, 보안업체 에스원과 스마트홈 사업제휴

SK텔레콤이 국내 1위 보안업체인 에스원과 스마트홈 서비스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제휴를 통해 SK텔레콤의 스마트홈 플랫폼과 에스원의 세콤 홈블랙박스 서비스 플랫폼을 연동한 융합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SK텔레콤은 스마트홈 서비스의 '안전' 기능을 더욱 강화할 수 있게 됐으며, 에스원은 홈블랙박스에 다양한 스마트홈 기능을 접목함으로써 상품 경쟁력을 한 차원 끌어올릴 수 있게 됐다.

에스원의 세콤 홈블랙박스는 공동주택 전용 상품으로 스마트폰을 이용해 원격으로 집 안의 방범상태를 설정하거나 해제할 수 있다.

침입이나 이상이 발생하면 곧바로 고객 스마트폰으로 알림메시지를 전송하고 긴급출동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르면 12월 출시되는 서비스는 SK텔레콤의 스마트홈 서비스가 외부 기기 연동을 넘어 융합서비스를 고객에게 제공하는 최초의 사례다. /정문경 기자

LG "웹OS TV 무료 업그레이드하세요"



LG전자는 이달 중순부터 웹OS TV를 사용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무상 업그레이드를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업그레이드를 통해 웹OS를 사용하는 고객들도 웹OS 2.0의 주요 기능들을 사용할 수 있다. 이 서비스는 글로벌 고객 모두가 대상이며 TV가 인터넷에 연결만 돼 있으면 된다.

LG전자는 올해 초 선보인 웹OS 2.0에 처음 적용된 채널 즐겨찾기, 빠른 설정, 외부입력 선택 등의 기능을 업그레이드를 통해 제공한다. 라이브 메뉴의 실행 방법도 간편하게 개선했다. /임은정 기자

렉서스 "올 뉴 ES, 月 400대씩 팔겠다"



1일 렉서스 '2016 올 뉴 ES' 출시행사에서 요시다 아키히사 렉서스 사장이 프리젠테이션을 하고 있다. /렉서스 제공

"벌써 200대 예약 판매… 年 10% 성장 기대"

"렉서스 ES 월 400대 팔아 연 10% 성장목표 달성하겠다."

요시다 아키히사 렉서스 코리아 사장은 1일 서울 잠실 커넥트투에서 열린 '2016 렉서스 올 뉴 ES' 미디어 출시행사에서 이같이 말했다. 렉서스는 이를 통해 연초 제시한 연간 10% 성장도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신형 ES는 지난 8월 15일 사전계약을 시작해 200대가 예약 판매됐다. 이번에 국내에 출시된 모델은 6세대 모델이다. 하이브리드 차량 ES300h와 3500cc 6기통 가솔린 엔진이 탑재된 ES350 등 2종이 출시됐다. 두 모델 모두 일본 큐슈공장에서 생산된다.

이병진 렉서스 브랜드마케팅담당 이사는 "개별소비세 인하분이 반영돼 가격이 내려갔다. 여기에 독일차 대비 엔진 배기량이 우수하고 실내 인테리어 부분까지 뛰어나 종합적인 부분에서 경쟁력이 있다"고 말했다.

ES는 국내 렉서스 판매의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모델이다. 이 중 90%는 하이브리드 모델인 ES300h가 견인하고 있다. 하이브리드 모델인 ES300h는 올해 7월까지 2627대 팔려 수입차 판매순위 7위에 올랐다. 이밖에도 신형 ES에는 10개의 에어백이 탑재됐다.

올 뉴 ES 시리즈의 국내 판매가격은 ES300h가 5180만~6370만원, ES350가 5270만~6540만원이다. ES시리즈 판매량의 60%를 차지하는 ES300h 슈프림 트림의 경우 개별소비세 인하분 반영으로 기존 모델의 판매가격인 5630만원보다 낮은 5590만원에 책정됐다.

/정용기 기자 yonggi@metroseoul.co.kr

8월 완성차 판매 5사, 내수↑ 해외↓

현대차만 소폭 상승해

국내 완성차 5사가 8월 내수 시장에서 판매량이 증가했지만 해외시장에서 현대차를 제외하고 모두 부진한 실적을 거뒀다.

1일 각사에 따르면 현대자동차는 이달 국내 5만1098대, 해외 31만8694대 등 총 36만9792대를 판매했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3.3% 증가한 수치다. 이 기간 국내·해외 판매는 각각 6.1%, 2.8% 증가했다. 승용시장에서 아반떼는 2014년 9월 이후 11개월 만에 내수 판매 1위에 올랐다.

기아자동차는 이달 국내 4만1740대, 해외 15만4242대 등 총 19만5982대를 판매했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9.9% 감소한 수치다. 이 기간 국내 판매는 15.9% 증가한 반면 해외 판매는 15.0% 감소했다. 내수 시장에서 신형 쏘렌토가 6311대, 신형 K5가 4934대 팔려 실적을 견인했다.

한국지엠은 이달 국내 1만3844대, 해외 2만2096대 등 3만5940대를 판매했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16.5% 감소한 수치다. 이 기간 국내 판매는 16% 증가한 반면 해외 판매는 16.5% 감소했다. 스파크는 이달 총 6987대가 판매돼 전년 동기 대비 53.3% 증가하며 기아차 모닝을 제치고 경차 1위를 탈환했다.

쌍용자동차는 이달 국내 7517대, 해외 3254대 등 총 1만771대를 판매했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10.3% 증가한 수치다. 이 기간 국내 판매는 45.7% 증가한 반면 해외 판매는 29.4% 감소했다. 소형 SUV(스포츠유틸리티차량) 티볼리의 글로벌 판매가 지난 4월 이후 5개월 연속 5000대가 넘으면서 당초 연간 판매목표인 3만8000대는 이미 넘어섰다.

르노삼성자동차는 이달 국내 6201대, 해외 3856대 등 총 1만57대를 판매했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4.8% 감소한 수치다. 이 기간 국내 판매는 30.8% 증가한 반면 해외 판매는 33.7% 줄었다. 내수 시장에서 소형 SUV QM3가 2119대 판매돼 실적을 견인했다. /정용기 기자

SK 후원 대전센터, 2기 벤처 인큐베이팅 가동

성과 사업화한 기업 60% 중국시장 진출도 지원

SK그룹이 후원하는 대전창조경제혁신센터(이하 대전센터)가 개소 후 두번째로 선발한 10개 벤처기업에 대한 10개월간의 인큐베이팅에 들어간다.

대전센터는 이번에 추가로 선발한 10개 벤처기업이 참석한 가운데 '드림벤처 스타 2기' 출범식을 1일 개최했다.

임종태 대전센터장은 "2기 드림벤처 스타는 기술 수준과 완성도가 높아 조기에 성공 모델이 만들어질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그간의 운영 노하우와 대전시, 정부, SK그룹의 지원을 활용해 창조경제의 성공 신화를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대전센터는 창조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지난해 10월 벤처기업 10개를 드림벤처 스타 1기로 선발한 뒤 사업화를 지원했다. 이들 기업은 대전센터의 지원 속에 매출을 6.1배 늘리고, 투자유치와 고용 측면에서도 뚜렷한 성과를 올렸다.



대전창조경제혁신센터는 1일 대전 카이스트에 위치한 센터에서 드림벤처 스타 2기로 선발된 10개 벤처기업과 참석한 가운데 출범식을 갖고 힘찬 도약을 다짐하고 있다. /SK 제공

이번에 출범한 드림벤처 스타 2기는 3단계 심사를 거쳐 27대1의 경쟁률을 뚫고 선발됐다.

드림벤처 스타 2기에는 적외선 센서와 에너지저장장치(ESS), 레이저 활용 암진단, 플라스마 활용 멸균 기술 등 대학과 연구소에서 확보한 연구성과를 사업화한 벤처기업이 60%를 차지한다. 카이스트 현직 교수들과 국내외 유명 대학 석·박사급 연구원이 창업 대열에 합류한 것도 특징이다.

사업 분야는 사물 인터넷(3건)과 헬스 케어(2건), 반도체, 에너지, 플랫폼, 솔루션, 핀테크(각 1건) 등으로 스펙트럼이 다양해졌다. 사물 인터넷과 제조, 솔루션 분야가 주종을 이뤘던 1기에 비해 융합형 사업 아이템이 많아졌다.

SK그룹은 2기 벤처기업의 기술이 그룹의 주력 사업과 연계된 것이 많아 기술 및 사업 부서 전문가를 1대1로 매칭시켜 사업화에 필요한 노하우를 전수하기로 했다.

SK그룹은 대전센터와 함께 이들 기업의 중국 시장 진출도 지원한다. '중국판 실리콘 밸리'인 선전(深川)에서 투자설명회를 개최해 해외 투자를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김종훈 기자 fun@

현대차그룹, 본사에 청년고용지원센터 출범

현대자동차그룹은 1일 서울 양재동 본사에 청년 고용 확대를 위한 '청년고용지원센터'를 출범했다.

청년고용지원센터는 지난달 27일 발표한 '현대차그룹 청년 채용 및 취업 지원 방안'을 시행하는 전담기구다.

청년들의 채용 및 취업, 창업을 위한 구체적 사업을 추진해 나가게 된다.

현대차는 그룹 내 채용, 교육, 인턴 등을 담당하는 실무 전문가들과 협력업체 지원을 위한 상생협력 담당자들을 센터에 합류시켰다.

향후 추가인원 필요 시에도 그룹 내 다양한 전문인력을 투입할 방침이다.

청년고용지원센터의 주요 추진 사업은 ▲청년 취업과 창업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 ▲그룹 해외 인턴제 시행 지원 ▲청년 고용 확대를 위한 교육기관(대학, 마이스터고 등)과의 협력 ▲광주창조경제혁신센터 창업 프로그램 협업 등이 포함된다.

청년고용지원센터는 청년 취업 지원 프로그램 '고용 디딤돌'의 주관기관인 '자동차 부품산업진흥재단'과 협력해 각종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운영 안을 수립한다. /이정필 기자

'2016 쉐보레 올란도 디젤' 한국지엠, 사전계약 실시

한국지엠은 유로6 기준을 만족하는 친환경 디젤 엔진을 적용한 2016년형 쉐보레 올란도 디젤 모델의 16일 판매개시에 앞서 1일 사전계약을 시작했다.

사측에 따르면 올란도 2016년형 모델은 트랙스 디젤에 이어 제너럴 모터스(GM) 유럽 파워트레인이 개발하고 독일 오펠(Opel)이 공급하는 4기통 1.6 CDTi 디젤 엔진과 GM 전륜구동 차량 전용 3세대 6단 자동변속기를 장착했다.

쉐보레 올란도의 1.6리터 디젤 엔진은 선택적 환원 촉매 시스템을 적용해 유로6 환경 기준을 만족한 친환경 엔진이다.

최대출력 134마력, 최대토크 32.6kg.m의 힘을 낸다.

독일 오펠의 첨단 디젤엔진 개발 기술이 집약된 1.6 CDTi 엔진은 견고하고 가벼운 알루미늄으로 제작했다.

3세대 6단 자동 변속기는 무게를 34% 경량화해 기존 2.0 디젤 엔진 대비 연비를 향상(복합연비 13.5㎞/ℓ, 고속주행연비 15.2㎞/ℓ, 도심주행연비 12.3㎞/ℓ)시켰다.



2016 올란도 번트 코코넛.

쉐보레 올란도 2016년형 모델에는 번트 코코넛과 블루 아이즈의 두 가지 외관 컬러를 추가했다.

/이정필 기자 roman@

프리미엄/수익형상가

소액투자 수익형 상가



남양주시 별내 택지지구내 상가로써 분양면적 780㎡전용면적 440㎡의 상가. 현재 보증금 1억원에 월 600만원의 임대 수익이있다. **급매가 11억** (수익률 년 7.2%) 현금3억원매수가능, 소액투자자한테 적합한상가.

경기도 의정부시 신세계백화점 앞 빌딩



의정부 민자역사 신세계백화점 입구에 위치한건물 대지 340㎡ 연면적 1100㎡ 현재 보증금 2억9천, 월 1700만원 임대료발생, 전층 근생업종이 입주해있고 의정부 핵심 상권인 신세계백화점 입구에위치 유동인구 최고의 상권임. **매매가 45억원**

논현역 대로변 빌딩



7호선 논현역 대로변에 위치한 빌딩으로써 대지면적 490㎡ 연면적 1,600㎡의 빌딩으로써 현재 보증금 3억2,000만원 월 3,100만원의 임대료가 발생한다.
성형외과, 피부과등의 병원, 또는 사옥용으로 적합한 매물이다.
매매가격 105억원

길동역 , 대수선용빌딩



길동역 대로변에 위치한 빌딩, 대지면적 720㎡ 연면적 2,200㎡의 건물 현재 보증금 5억4,000만원 월 4,000만원의 임대수익이있다 . 외벽 및 실내를 대수선공사 완료시 보증금 7억5,000만원 , 월 5,700만원의 임대 수익이 예상된다.
매매가격 110억원

핫 ! 이슈

홍익대학교 임대용 빌딩

홍대 메인 상권에 위치한 임대수익용 빌딩으로써 대지면적 510㎡ 연면적 270㎡의 부동산이다. 현재 보증금 3억원에 월 3,000만원의 임대료가 나온다 .
급매가 72억원

종로대로변 임대용빌딩

1호선 동묘역 출구 대로변코너에 위치한 건물로써 대지 540㎡ 연면적 1800㎡의 건물로써 병원등 우량한 임차업종이 입주해있다. 현재 보증금 9억원에 월 4,000만원의 임대수익이있다.
매매가격 95억원

강동구 임대용빌딩

강동구 상업지역에 입지한 건물로써 대지면적 610㎡ 연면적 3,300 ㎡의 건물 현재 보증금 8억원에 월 약6,000만원의 임대료가 나온다 .
전층 병원 및 유명 프렌차이즈등이 입주해있으며 안정적인 임대수입을 원하는 투자자한테 적합한 매물이다 .
매매가격 120억원

2호선 강남역빌딩

국내 최고 상권인 2호선 신분당선 환승역인 강남역 상업지역에 위치한 건물 대기업등의 업무시설,어학원 및 근생시설이 밀집되어있는 지역으로 대지면적 340㎡ 연면적 2,000㎡ 근생건물이다. 현재 보증금 8억 6,000만원 월 7,800만원의 임대료가 나온다 . 매매가격 150억원

의정부시 을지대 병원앞 빌딩



현재 최고의 지기 상승 및 미래가치가 보장된 **을지대학교 신축부지앞 대로변에 위치한 건물**로써 대지면적 605㎡ 연면적 1200㎡의 임대용 건물이다. 보증금 2억원 월 1200만원의 임대 수익이발생. 향후 을지대학교및 부속병원이 완공될시 최고의 상권으로 급부상이 기대된다. 전층 근생업종 입주. **급매가 36억원**

2호선 봉천역출구 사옥 및 병원용빌딩



대지면적 530 ㎡연면적 2,000 ㎡ 의 건물로써 **2호선 봉천역 출구 대로변 코너에 위치 .** 사옥, 또는 병원등에 적합한 건물이다 . 현재 보증금 3억8,000만원에 월임대료 3,000만원의 임대료가 나온다 . **매매가 80억원**

문의전화 : 02)557-1027 / 010-5273-3985
프리엠에셋부동산중개(주) 박세민

프리미엄•역세권 / 빌딩•상가 매매

프리엠에셋부동산중개(주) 박세민 **문의 : 010-9000-1782**

역삼역 역세권 수익용 신축빌딩



역삼역 3분거리 유동인구가 많은 메인상권에 위치한 수익용빌딩이다.
대지 520㎡, 건물 2,000㎡, 지상10층이며 보증금 6억5,000만원, 월수익 6,400만원이 나온다. 신축건물이며 우량한 임차인구성으로 공실이 없으며 안정적인 임대수익을 보장해준다. 매매가는 150억이다.

신논현역 메인상권 수익용 근생빌딩



지하철 9호선 신논현역 인근 메인상권 코너에 위치한 수익용 근생빌딩이다.대지 440㎡, 건물 1,600㎡, 지상6층 빌딩이며 보증금 6억4천만원에 월수익 6,500만원 정도다. 코너에 위치하여 가시성이 좋고 모든 임차업종이 근생으로 이루어져 공실염려가 전혀 없는 빌딩이고 매매가는 165억이다.

청량리 초역세권 대로변 급매각 빌딩



청량리역 앞 대로변 위치하여 가시성 및 접근성이 좋은 임대용 급매빌딩이다. 대지 420㎡, 건물 1,100㎡, 지상5층이며 보증금 5억에 월수익 2,500만원 정도임.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이고 개발호재 등 투자가치가 있는 빌딩이다. 매도인 사정상 급매로 진행하며 매입 후 임대관리 및 향후 신축시 수익성 및 투자가치를 급상승 시킬 수 있는 빌딩이고 매가는 58억이다.

역삼역 임대수익용 빌딩



역삼역 1분거리에 위치한 공실없는 임대수익용 빌딩이다. 대지 500㎡, 건물 1,250㎡, 지하1층 지상4층 근생빌딩임. 주변 프랜차이즈 식당 및 커피숍 등이 즐비한 활성화된 상권에 입지하였다. 보증금 4억 월수익 2,900만원이며 최근 리모델링을 완료하여 건물 상태는 최상이며 매가는 72억이다.

논현역 출구 앞 강남대로변 신축빌딩



논현역 출구 바로앞 광대로변에 위치한 수익용빌딩이다 . 대지 370㎡, 건물 2,850㎡, 지상10층이며 보증금 약14억에 월수익 8,200만원 정도이다. 피부과, 치과, 성형외과 등 메디컬 위주로 임차가 이루어져 있으며 매가는 220억이다. 안정적인 임대수익과 동시에 향후 분당선 연장개발로 인한 투자가치 상승이 예상되는 희소성있는 특A급 빌딩이다.

대치동 사옥 겸 임대수익용 빌딩



삼성역 인근 대로변에 위치한 사옥 및 임대용 빌딩이다. 대지 440㎡ 건물 1700㎡, 8층 건물이며 주변에 학원가가 밀집해 있는 지역이다. 현재 일부 사옥을 사용하면서 나머지는 학원 등으로 임대를 주고 있다.
투자자의 의사에 따라 사옥으로 사용 할 수도 있고 전체 임대수익용 빌딩으로 운영할 수도 있다. 수익률은 5%정도이며 매가는 110억이다.

강남역이면 구조조정 임대용 빌딩



강남역과 역삼역 사이 테헤란로 바로이면에 위치한 법인 구조조정 임대용빌딩이다.
대지 350㎡ 건물 2,000㎡ 지상10층 빌딩이며 현재 공실은 없으며 월수익 5200만원이고 수익률은 5.5% 정도이다. 법인 소유의 빌딩으로 사정상 주변 거래시세에 비해 월등히 저렴한 가격으로 매매를 진행하고 있다. 매가는 110억이다.

고수익용 분양상가



남양주 별내 신도시에 위치한 분양상가 건물이다.분양면적 780㎡이며 현재 스크린골프업체가 보증금 1억에 월세 700만원으로 장기임차 중에 있다. 수익률은 8%이상이다. 주변지역이 정비되어감에 따라 향후 투자가치도 예상된다.

중고차 매매

- **싼타페DM 2륜 프리미엄 13년 1월 크림색**
  완전무사고 썬루프 정품네비 45000km (매매/2600)
- **더 뉴 아반떼 LPI 흰색**
  완전무사고 15년형식 35000km (매매/1160)
- **제네시스 모던 13년 4월 검정**
  완전무사고 네비 후카 1만km (매매/3250)
- **뉴카렌스 GX 최고급형 검정**
  완전무사고 78000km (매매/900)
- **싼타페 CM SLX고급 흰색**
  썬루프 네비 스마트버튼 완전무사고 15만km (매매/1050)
- **더 뉴 아반떼LPI 검정**
  완전무사고 15년형식 47000km (매매/1160)
- **에쿠스 380 프레스티지 검정**
  완전무사고 15년 3월 네비 뒷좌석TV 6천km (매매/8550)
- **그랜져HG 240 검정**
  완전무사고 12년 2월 네비 후카 51000km (매매/2200)
- **카니발R 9인승 12년 7월 은색**
  완전무사고 네비 자동문 VDC 6만km (매매/2040)
- **더 뉴 K9 GDI VIP 14년 11월 검정**
  완전무사고 네비 3천km (매매/6100)
- **스마트 흰색**
  완전무사고 14년 9월 2천km (매매/2330)
- **BMW 520D 12년 5월 검정**
  완전무사고 썬 네비 49000km (매매/4000)

문의 010-2727-5622



서울 강남에 위치한 노키아 코리아 미래기술연구소에서 박진효 SK텔레콤 네트워크 기술원장(오른쪽 3번째)과 노키아 코리아의 앤드류 코프(Andrew Cope, 오른쪽 4번째) 대표가 LTE 기반 소물인터넷 기술 공동 개발에 대한 MOU를 체결하고 적극적 협력을 다짐했다. /SK텔레콤 제공

SKT, 노키아와 소물인터넷 개발 MOU

SK텔레콤은 글로벌 네트워크 장비업체인 노키아와 1일 LTE 네트워크 기반 소물인터넷(Internet of Small Things·소량의 데이터 전송에 특화한 전송기) 기술의 공동 연구·개발을 위한 상호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이날 노키아 코리아의 미래기술연구소에서 열린 MOU 체결식에는 SK텔레콤의 박진효 네트워크 기술원장과 노키아 코리아의 앤드류 코프 대표 등 양사의 관계자들이 참석해 적극적 협업을 다짐했다.

이번 MOU를 통해 양사는 수 킬로바이트(KB) 수준의 저용량의 정보를 송수신하는 '소물(Small Things)'간의 통신을 대규모로 지원해야 할 사물인터넷 기술인 'MTC'의 공동 연구·개발과 서비스 개발에도 힘을 모을 계획이다.

또 양사는 소물인터넷 기기에서 다중안테나, 광대역 주파수 지원 기능 등 불필요한 기능을 삭제하는 등 전체적인 기기 단순화를 통해 배터리 수명을 10년 이상으로 연장하는 내용도 함께 연구한다. /정문경 기자 hm0108@

車 결함 5년간 36만대 리콜

<안전벨트·에어백>

자동차 안전벨트나 에어백의 제작 결함으로 최근 5년간 국내에서 리콜된 자동차가 36만여대로 집계됐다. 안전벨트 결함 리콜은 한국지엠, 에어백 결함 리콜은 현대자동차가 가장 많았다.

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이노근 새누리당 의원이 교통안전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1년부터 올해 6월까지 안전벨트 결함 리콜은 8만5300대, 에어백 결함 리콜은 28만3559대 등 총 36만8859대로 조사됐다.

안전벨트 또는 에어백 결함으로 리콜된 차량은 2011년 12만1042대, 2012년 225대, 2013년 1만7120대, 2013년 14만6280대로 급증했다.

올해 1~6월은 9만4192대로 나타났다.

안전벨트 리콜 대수가 많은 업체는 한국지엠(8만356대), 크라이슬러(2756대), 메르세데스-벤츠(1135대) 순이었다.


현대차 투싼.

안전벨트 결함 '한국지엠' 에어백은 '현대차' 최다

한국지엠은 말리부와 알페온 차량의 뒷좌석 안전벨트 버클이 분리될 가능성이 발견돼 3월 7만8615대를 리콜했다.

에어백 리콜 최다 업체는 현대차다. 12만2561대를 리콜했다.

현대차 투싼은 지난해 에어백이 들어 있는 운전대의 경음기 커버가 떨어져 나가 에어백 작동에 지장을 줄 수 있는 결함이 확인돼 12만2561대가 리콜됐다.

현대차 다음으로는 르노삼성(12만805대)과 토요타(1만1565대)가 뒤를 이었다.

안전벨트와 에어백 결함은 안전에 중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사안인데도 일부 차량은 시정률이 낮은 것으로 파악됐다.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자동차 제조업체는 분기마다 국토부 장관에게 시정조치 상황을 보고하게 돼 있다.

이 의원은 "국토부는 리콜 시정률이 저조한 차량에 대해 강제적 시정조치를 통해 결함차량이 국민의 안전을 위협할 가능성을 차단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토부는 시정조치 현황을 제대로 감독해야 하며 이를 실제와 다르게 보고하거나 빠뜨리는 업체는 처벌하는 방안을 마련해 소비자가 혼란을 겪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정필 기자 roman@metroseoul.co.kr

SK플래닛-서울시, 사물인터넷 도시 조성

SK플래닛이 서울시와 손잡고 주민안전, 관광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IT와의 접목을 통해 보다 발전된 도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민관협력에 나선다.

SK플래닛은 전날 서울시청 서소문청사에서 최영훈 서울시 정보기획관(국장)과 이준식 SK플래닛 커머스사업부문장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 사물인터넷 도시조성 공동협력 협약'을 체결하고 사물인터넷(IoT), 빅데이터 분야 등에 공동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협약의 목적은 SK플래닛과 서울시가 보유하고 있는 사물인터넷 기술과 빅데이터를 활용해 안전, 복지, 관광, 환경 등 서울의 다양한 도시 공공 서비스 발전을 위한 지속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데 있다.


8월 31일 서울 시청 서소문 별관에서 진행된 협약식에서 이준식 SK플래닛 커머스사업부문장(오른쪽)과 최영훈 서울시 정보기획관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SK플래닛 제공

먼저 SK플래닛은 서울시와 비콘 관련 인프라 전면 개방을 통해 사물인터넷 관련 스타트업, 개발자 등 다양한 민간사업자가 새로운 비즈니스를 창출할 수 있도록 사물인터넷 생태계 조성에 기여하게 된다. /정문경 기자

항공사, 추석연휴 국내선 예약접수 시작

대한항공·아시아나 등 1만 2118석 추가 공급



대한항공 B747-8i 여객기 앞에 승무원들이 서 있다. /대한항공 제공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추석 연휴 1만2100여석의 국내선 항공편을 추가 공급한다.

대한항공은 추석 연휴 임시 항공편의 예약 접수를 2일 오후 2시 시작한다.

예약은 대한항공 인터넷 홈페이지(www.koreanair.com), 예약센터(1588-2001), 여행대리점 등을 통해 가능하다.

대한항공은 이달 24일부터 30일까지 김포~제주, 부산~제주, 김포~부산 등 총 3개 노선에 23편의 임시편을 투입해 총 3219석을 공급한다.

이와 함께 기존 김포~제주 정기항공 노선 중 26편을 대형 기종으로 교체해 4334석을 추가 공급해 총 7553석을 제공할 계획이다.

1회에 예약 가능한 좌석은 최대 9석으로 제한한다.

아시아나는 추석 연휴 임시 항공편의 예약 접수를 8일 오후 2시 시작한다.

아시아나는 이달 24일부터 29일까지 김포/인천~제주, 김포~광주 등 3개 노선에 대해 총 26편(편도 기준), 4565석 규모의 임시 항공편을 투입한다.

예약 접수는 아시아나항공 예약센터(1588-8000)와 인터넷 홈페이지(flyasiana.com)를 통해 진행한다.

1인당 예약 가능한 좌석 수는 최대 4석으로 제한한다. /이정필 기자

LGU+, 해외 로밍 서비스 대폭 확대

LG유플러스는 해외 음성 로밍과 무제한 데이터 로밍 서비스를 대폭 확대한다고 1일 밝혔다.

LG유플러스는 해외에서 저렴하게 음성 통화를 발신하는 음성 특화 로밍 요금제인 '스마트 로밍 음성'(분당 음성 발신료 880원)과 무제한 데이터 로밍에 음성 통화 기능이 더해진 '스마트 로밍 패키지'(하루 1만2100원)의 제공 국가 수를 기존 39개국에서 50개국으로 늘린다. 서비스가 추가된 나라는 괌과 사이판, 인도네시아, 터키, 미얀마 등이다.

아울러 지금까지 일본, 홍콩, 싱가포르 등 3개국에서만 이용할 수 있던 'LTE 무제한 데이터 로밍 요금제'(하루 2만2000원)의 제공 국가도 중국, 미국, 호주, 프랑스, 영국, 남아프리카공화국, 카타르 등 20개국으로 확대한다. /정문경 기자

다음카카오 '카카오'로 사명 변경 추진

daumkakao

다음카카오가 '카카오'로 사명 변경을 추진한다. 모바일 생활 플랫폼 기업으로 본격 성장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다음카카오는 1일 대한민국 모바일 기업을 대표하는 기업 이름으로 '카카오'를 전면에 내세워 모바일 시대의 주역이 되겠다는 기업 정체성을 확고히 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해 10월 합병으로 대한민국 IT 역사의 장을 새롭게 연 다음카카오는 '새로운 연결, 새로운 세상'이라는 비전을 가지고 유기적으로 변하는 모바일 시장에 빠르게 대응해 왔다.

다음카카오는 "포털 서비스 '다음', 모바일 서비스 '카카오'라는 강점을 가지고 있지만 웹과 모바일을 대표하는 두 회사의 이름을 물리적으로 나란히 표기하는 '다음카카오' 사명에는 기업이 나아가고자 하는 방향이 모호한 측면도 존재해 왔다"며 "이에 모바일 기업 브랜드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사명 변경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양성운 기자 ysw@

'제일모직' 역사속으로

삼성물산 패션부문 출범
61년 만에 사명 변경
SPA·스포츠 집중 육성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 절차가 완료되면서 '제일모직'이라는 사명(社名)은 당분간 볼 수 없게 됐다. 제일모직은 삼성물산 패션부문으로 새롭게 출범한다.

삼성물산으로의 사명 변경은 글로벌 브랜드 인지도와 삼성그룹의 창업정신을 계승하는 차원에서 이뤄졌다. 하지만 제일모직은 새 사명으로 출범한 뒤 제일모직 사명을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1954년 창립된 제일모직은 삼성물산(1938년 창립), 제일제당(1953년 창립)과 더불어 삼성그룹의 모태기업으로 꼽혔다. 이후 제일제당은 계열 분리됐고, 제일모직은 삼성물산과 합병되면서 삼성물산이 그룹의 모태 기업으로써 명맥을 이어가게 됐다.

1일 제일모직에 따르면 이날 통합 삼성물산이 출범하는 가운데 존속법인인 제일모직은 태평로 본관에서 이사회를 열고 합병 종료를 이사회에 보고했다.

합병 후에는 사명이 제일모직에서 삼성물산으로 바뀌므로 제일모직이란 이름으로 열리는 마지막 이사회다. 이날 이사회에는 윤주화 대표, 김봉영 대표 등 사내이사 외에 사외이사 3인도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회사 측은 이날 이사회에서 그동안의 합병 과정을 설명하고 합병이 문제 없이 완료됐음을 보고했다. 이로써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은 완벽한 하나가 됐다.

제일모직은 갤럭시, 빈폴 등 대표 브랜드를 통해 남성복과 캐주얼을 중심으로 성공을 거둔 뒤 액세서리와 아동복, 아웃도어 등으로 라인을 확장했다. 또한 구호(KUHO), 르베이지 등의 여성복 브랜드와 제조·유통일괄형 브랜드(SPA)인 에잇세컨즈 등으로 포트폴리오를 다각화하며 국내 1위 패션기업으로 자리매김했다.

제일모직은 이번 합병을 통해 삼성물산의 글로벌 네트워크와 인프라를 활용, 패션과 식음료 등 글로벌 사업 확장을 도모할 계획이다.

패션부문의 경우는 국내시장의 경쟁우위를 바탕으로 해외시장을 적극 공략하고 SPA·스포츠 핵심사업 집중 육성, IT액세서리 신사업 추진을 통해 글로벌 패션 브랜드로 도약할 방침이다.

/박상길 기자 sweatsk@metroseoul.co.kr

"2020년 세계 최대 프랜차이즈 될 것"

제너시스BBQ그룹
창사 20주년 기념행사



제너시스BBQ 그룹 윤홍근 회장이 창사 20주년 기념사를 하고 있다. /제너시스BBQ그룹 제공

창사 20주년을 맞은 제너시스BBQ그룹(회장 윤홍근)이 1일 경기도 이천의 치킨대학에서 '대한민국 1등 20년! 세계 1등 2020년!'을 주제로 기념행사를 가졌다.

이날 기념행사에서 윤홍근 회장은 "1995년 그룹 설립 당시 맥도날드를 능가하는 세계 최대 최고의 프랜차이즈 그룹을 만들겠다는 비전을 잊지 않고 달려왔다"며 "비비큐는 창사 4년 만에 1000호점 돌파라는 프랜차이즈 산업에 전무후무한 기록을 세웠고 현재 전세계 57개국에 진출해 한국 토종 브랜드의 우수성을 알리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BBQ는 올해 초 '성과로 완성하자! 20주년!'이라는 경영슬로건을 내세우고, 2020년까지 전세계 5만개 가맹점을 보유, 맥도날드를 능가하는 세계 최대 최고의 프랜차이즈 그룹이 되겠다는 포부를 밝힌 바 있다.

이날 행사에서도 BBQ임직원들은 이에 대한 염원을 담아 치킨대학 인근 설봉산을 등반, 2020km 걷기를 목표(1인 약 5km)로 함께 걷는 시간도 가졌다. 또 1000만원을 불우 이웃에게 기부했다.

윤 회장은 "축하 샴페인을 터트리기 보다는 소외계층을 돌아보고 나눔을 실천하기 위해 이번 걷기 행사를 마련했다"며 "전 임직원이 한 마음 한 뜻으로 기부의 참 의미를 깨닫고 나눔의 가치를 공유하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野, 홈플러스 '도성환' 등 국감 증인요구

테스코 '데이브'
MBK '김병주' 등



1일 국회 의원회관 제8간담회장에서 '투기자본-사모펀드 매각의 문제점과 제도 개선 방안' 토론회가 열렸다. /사진=김성현 기자

환경노동위원회 야당 의원들이 홈플러스 매각 관련 테스코의 데이브 루이스 사장과 홈플러스 도성환 사장, 본입찰에 참여한 MBK파트너스 김병주 회장을 향해 10월8일 국정감사 증인 출석을 요청했다.

1일 오후 3시 국회 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는 '투기자본-사모펀드 매각의 문제점과 제도개선 방안' 토론회가 열렸다.

토론회에 참석한 새정치민주연합 전순옥 의원은 "작년에 도성환 사장을 국감에 불러 (점오 계약제 등) 홈플러스 문제에 대해 책임을 추궁했었다"며 "올해는 테스코의 홈플러스 매각 먹튀 행위와 사모펀드에의 매각을 두고 테스코의 데이브 루이스 사장, 홈플러스 도성환 사장, MBK파트너스의 김병주 회장을 국감 증인으로 요청했다. 다만 여당에서 반대하고 있어 조율중이다. 오늘 오후 5시부터 계속 조율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도 사장과 데이브 사장, 김 회장은 아직 증인으로 채택된 것은 아니며 현재 여·야가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만일 이번 증인 요구를 여당에서 받아들일 경우 한 기업을 두고 3명의 증인이 국감에 서는 것이다. 다만 데이브 루이스 사장은 증인 채택이 된다해도 출석은 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 국회 관계자는 "데이브 사장을 국감 증인으로 채택한다고 해도 출석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사실상 현실성 없는 증인요구"라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전 의원과, 새정치민주연합 장하나 의원 등의 국회의원과 홈플러스 노동조합, 민주노총, 참여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등 다수의 시민·사회단체들이 참석했다. /김성현 기자 minus@



가을맞이 '알톤자전거' 단독 기획 홈플러스(사장 도성환)은 가을을 맞아 전국 140개 전 점포에서 알톤자전거와 손잡고 단독 기획한 인기 자전거 모델 1만대를 할인 판매한다고 1일 밝혔다. 9일까지 자전거를 구매하는 고객에게는 구매금액 10만원당 5000원 상품권도 증정한다. /홈플러스 제공

네이처리퍼블릭, 카자흐스탄에 1호점 오픈

네이처리퍼블릭(대표 정운호)은 중앙아시아 최대 경제대국인 카자흐스탄에 1호점을 오픈했다고 1일 밝혔다.

카자흐스탄 1호점은 경제수도 알마티의 중심가에 위치한 도스툭 플라자 쇼핑센터에 입점했다. 99㎡(30평) 규모의 매장으로 현지에 있는 단일 화장품 매장 중에서 가장 큰 규모를 자랑한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네이처리퍼블릭은 '자연'을 키워드로 삼고 매장 인테리어부터 제품에 이르기까지 진실된 자연주의 브랜드 콘셉트를 내세워 친근하게 다가갈 계획이다

SPC '창립 70주년 기념 엠블럼' 공개

올해 창립 70주년을 맞는 SPC그룹(회장 허영인)이 이를 기념하며 '창립 70주년 기념 엠블럼'을 1일 공개했다.

창립 70주년 기념 엠블럼은 세계적인 디자이너 '알레산드로 맨디니'와 SPC그룹이 협업해 만들었다. 화려한 컬러의 원 패턴은 끊임없이 변화하는 SPC그룹의 역동성을 담았으며, 폭죽이 터지는 형상의 작은 원들은 삼립식품·파리바게뜨·배스킨라빈스 등의 여러 브랜드들이 축제를 여는 모습을 표현했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렛츠 비 해피(Let's Be Happy)'에 표현된 문양은 지난 70년 역사의 뿌리를 바탕으로 더 가치 있는 기업으로 성장하는 미래의 모습을 형상화했다.

SPC그룹 관계자는 "이번 엠블럼 발표와 함께 새로운 도약을 다짐하며, 사랑 받는 기업으로 자리매김 할 것"이라고 말했다.

불혹의 맛동산, 28억 봉지 팔렸다



올해로 출시 40주년을 맞은 맛동산이 28억개 판매를 돌파했다.

1일 해태제과(대표 신정훈)에 따르면 지난 1975년 출시된 맛동산은 그동안 28억개가 팔렸다. 이는 국민 1인당 55봉지씩 먹은 셈으로 이를 일렬로 늘어놓으면 지구에서 달까지 1회 왕복 할 수 있다.

특히 최근 5년 동안에는 연평균 15% 이상의 매출 증가를 기록하며 40년이 지난 현재도 고객들의 변함없는 사랑을 받고 있다. 지난해에는 연 매출 720억원을 기록했다.

H&M, 일·자기계발 균등한 성장 실현

수요일은 가족사랑의 날

연중기획 가정이 있는 직장

㉒ H&M



H&M은 출산 후 경력이 단절되는 여성이 복귀시 업무나 승진에 차별을 받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다. H&M 직원들이 환하게 웃고 있다. /H&M 제공

인재별 맞춤 업무 포지션 배치
전공·경력 등에 구애받지 않아

승진이나 원하는 업무 복귀 등
출산 휴가 전·후 여성직원 혜택

스웨덴 의류 브랜드 에이치앤엠 헤네스 앤 모리츠 주식회사(H&M, 대표 칼 요한 페르손)의 용산 아이파크몰 점 스토어 매니저인 김미란씨(33·여)는 판매사원으로 시작해 스토어 매니저를 거쳐 인사팀 채용 담당자로 승진한 케이스다.

김씨는 2010년 2월 한국에 H&M이 첫 매장을 오픈했을 때 세일즈 어드바이저(판매사원)으로 입사했다. 그는 같은 해 5월 디파트먼트 매니저로 승진한 뒤 연말 둘째 아이를 출산하기 위해 출산 휴가를 냈다. 2011년 5월 복귀한 김씨는 지난해 4월 스토어 매니저로 승진했고 최근에는 인사팀의 채용담당으로 보직 변경돼 올해 안에 본사 사무실로 근무지를 옮길 예정이다.

2010년 세일즈 어드바이저로 입사한 아이린씨(32·여)는 3개월 후 디파트먼트 매니저로 승진했다. 1년 6개월 여가 지난 현재는 남성복 머천다이저로 근무하고 있다. 그는 "패션을 전공했지만 머천다이저라는 실무는 경험하지 않았다"며 "하지만 H&M은 저의 제품 선택을 믿고 따르며 지지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H&M은 누구든지, 언제 시작을 했든지 열정만 있다면 그 꿈을 무궁무진하게 펼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올해로 입사 1년째를 맞이한 하이디씨(28·여)는 리테일 근무 8년차다. 지난해 H&M 눈 스퀘어 명동점에 디파트먼트 매니저로 입사한 뒤 6개월 만에 스토어 매니저 시험을 통과했다. 하지만 하고 싶었던 일이 인사팀 근무라 이후 인사팀 채용담당 공고가 났을 때 응시해 합격했다. H&M은 2010년 한국에 매장을 열 때부터 여성 직원의 채용 비중을 높이고 출산 휴가를 앞둔 여성 직원에게는 승진이나 업무 포지션 복귀 등의 혜택을 제공하는 등 여성 직원을 위한 사내 복지에 힘쓰고 있다.

H&M 코리아의 여성 직원 비율은 60%를 훨씬 웃돈다. 여성 직원 비율은 5년간 꾸준히 65%를 넘어서고 있다. H&M의 여성 직원 비중은 ▲2010년 66.9% ▲2011년 70.4% ▲2012년 66.5% ▲2013년 68.3% ▲2014년 69.1% ▲2015년 68.4% 등이다.

매니저 포지션 중 여성 비율은 72%에 달한다. 매니저 포지션의 대부분은 내부 승진을 통해 발탁됐으며 부서간 이동이나 매장에서 오피스로의 이동도 많은 편이다.

H&M은 여성 직원이 출산 휴가를 가야할 경우 출산 휴가 또한 법정 출산 휴가 기간(3개월) 외에 최대 1년 6개월까지 보장해 준다.

출산 휴가 후 업무로 복귀할 때는 같은 포지션으로 복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연봉 복귀 전과 동일하게 지급한다. 복귀자가 출산 휴가전 맡았던 포지션에 자리가 없을 경우에는 본인의 의사를 반영해 최대한 유사한 포지션을 찾아준다.

H&M은 자사를 돋보이게 하는 것은 직원의 능력에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H&M에서 맡은 역할을 책임감있게 수행해내는 걸 최우선으로 삼고 있다. 이와 함께 일과 사생활의 균형을 중요하게 생각하며 개인의 생활을 존중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H&M은 직원들의 근무 시간을 보장하고 사내 자기계발과 균등한 성장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사측은 직원들에게 주 40시간 근무를 권장하며 세일즈 어드바이저, 디파트먼트 매니저, 비주얼 머천다이저, 스토어 매니저 등 사내 모든 직급에 관한 교육을 시행하고 있다. 아울러 사내 채용과 업무 순환, 기능적 역할 이동을 통해 직원들의 경력 개발의 기회를 넓혀준다.

휴가 제도도 자유롭게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H&M 관계자에 따르면 사내 팀장급 이상의 임직원들은 직원들을 휴가보내는 것을 중요한 업무 중의 하나로 여기고 있다.

장기 근속자의 경우 3년 이상 근무시 추가 공식 휴가일에 3일이 추가되고, 5년 이상 근무하면 5일이 추가된다. 특히 5년 이상 근무한 모든 직원은 H&M의 이익을 배당받을 수 있는 H&M 인센티브 프로그램에 가입하게 된다. /박상길 기자 sweatsk@metroseoul.co.kr

H&M 일·가정 양립제도

여성이 일하기 좋은 회사
- 여성 직원 비율 60% 상회
- 여성 매니저 포지션 비율 72%
- 출산 휴가 최대 1년6개월 보장
- 업무 복귀시 연봉·포지션 동일 적용
파트타이머도 차별 없는 기업 문화
- 승진 커리어 제한 없어
- 시간제 일자리 경력 인정
- 판매사원→ 점장→ 정규직
- 5년 장기근속자, HIP인센티브 지급

공동기획 : 여성가족부 metro

모든 직원이 차별없이 존중받는 회사

직원 채용에 학벌 등 제한 없어
정규직·비정규직 복지 혜택 동일

5년 이상 근무시 HIP 지분도 받아
62세·10년 근무자에 인센티브도

스웨덴 의류 브랜드 에이치앤엠 헤네스 앤 모리츠 주식회사(H&M·대표 칼 요한 페르손)은 비정규직과 정규직간 복지 혜택에 차이를 두지 않고 있다.

페르손 가문은 'The H&M Way'라는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모든 임직원이 공유하게 했다. 핵심 내용은 H&M을 '직원들의 인권을 존중하고 진정성과 존중, 겸손, 존엄성을 가지고 서로를 대하는 곳'으로 만들자는 것이다.

리더의 역할은 직원에게 맞는 업무를 찾아주고, 일에 대한 피드백을 제공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이에 착안해 H&M 안에서는 비정규직과 정규직간에 업무 시간에 따른 임금 차이만 있을 뿐이지 특정 기간에 따라 승진을 하거나 하는 정해진 커리어 단계가 없다. 파트타이머로 일하던 고졸 직원이라도 능력을 인정받으면 정직원이 될 수 있다.

이 때문에 H&M은 시간제 일자리로 경력을 쌓는 것을 추천하고 있다.

매장에서 수습사원으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거나 사무실에서 인턴십과 훈련 프로그램에 지원할 기회를 마련해 놓고 있다.

한 예로 H&M 코리아 홍보팀 내 신규 직원 두 명이 동시에 채용됐는데 한 명은 입사 5년차 비주얼 머천다이저였고, 또 한명은 세일즈 어드바이저(판매사원)로 주 30시간 파트타이머였다.

이외에도 H&M이 2011년부터 시행하는 'H&M Incentive Program(HIP)'에서도 공평한 직원 혜택제도를 확인할 수 있다.

창업주인 페르손가가 기부한 1310억원을 기금으로 H&M 주식에 투자를 시작했다. 이전 연도와 비교해 한 해 동안 늘어난 수익의 10%를 임직원에게 나눠주는 제도다.

지난해 400억원 정도가 HIP에 기부됐고, 이 금액은 5년 이상 근무한 모든 직원에게 공평하게 분배될 계획이다. 직책이나 국가 파트타이머 등 모든 직원이 차별없이 받는다. 만 62세가 되거나 10년 이상 근무하면 인센티브를 신청해서 받을 수 있다.

/박상길 기자

국내외 로봇수술 석학 한 자리에

이대목동병원 로봇수술센터 전문가 초청 국제 심포지엄 수술 생중계 등 노하우 공유



이대목동병원 로봇수술센터는 지난달 28~29일 국내외 싱글 사이트 로봇수술 전문가들을 초청해 '2015 싱글 사이트 로봇수술 국제 심포지엄'을 열었다.

이대목동병원 로봇수술센터(센터장: 문혜성 산부인과 교수)는 지난 달 28일과 29일 양일간 국내외 싱글 사이트 로봇수술 전문가들을 초청해 국제 심포지엄을 개최했다고 1일 밝혔다.

8개월 만에 산부인과 싱글 사이트 로봇수술 100례를 달성한 기념으로 개최된 이번 국제 심포지엄에는 문혜성 센터장을 비롯해 정경아, 이사라 교수(이상 산부인과), 김광현 교수(비뇨기과) 등 이대목동병원 로봇수술센터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여기에 심포지엄 연자인 대만 타이페이 의과대학 홍청라이(Hung-Cheng Lai) 교수, 대만 타이청 메트로하버 병원 춘첸후(Chun-Chen Hsu) 교수, 계명대학교 조치흠 교수, 연세대 의대 조시현 교수와 중국, 몽골 의사 등 100여 명이 함께 했다.

참석자들은 첫 날 문혜성 센터장이 직접 집도하는 10㎝ 크기의 자궁근종 절제술, 유착된 근종에 의한 자궁 적출술과 농양성 난소종괴 제거술 등 고난이도 싱글 사이트 로봇수술을 생중계로 지켜봤다. 문 센터장과 참석자들은 실시간으로 소통하면서 지식과 수술법을 공유했다.

29일에는 문혜성 센터장을 비롯해 정경아, 이사라 교수 등 이대목동병원 로봇수술센터 소속 의료진과 홍청라이 교수, 춘첸후 교수, 조치흠 교수, 조시현 교수가 각각 자신의 로봇수술에 대한 경험을 공유하고 질의와 토론 시간을 가졌다. 심포지엄 후 문 센터장은 대만 연자들로부터 자신들 병원 로봇수술센터 의료진 교육을 위해 대만으로 초대받기도 했다.

문혜성 센터장은 "최소한의 절개를 통해 환자를 치료하는 최소 침습 수술은 이미 시대의 흐름이고 그 중심에는 싱글 사이트 로봇수술이 있다"면서 "오늘 국제 심포지엄을 통해 우리나라 싱글 사이트 로봇수술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국내외 전문가들과 수술법 공유를 통해 더 발전하는 이대목동병원 로봇수술센터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최치선기자 chisunti@metroseoul.co.kr

한국관광공사

강원도 관광지 150곳 무료 와이파이존 구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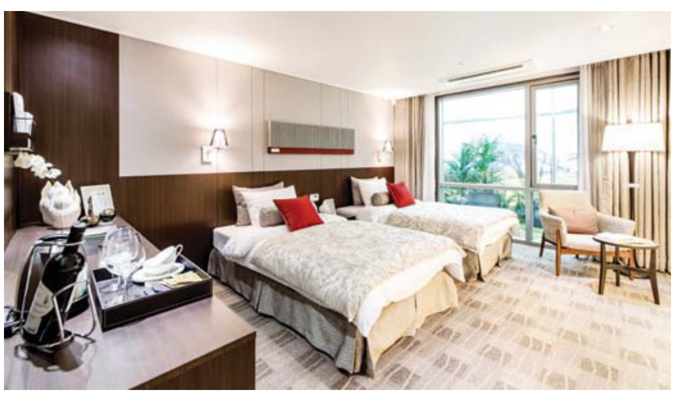
앞으로 강원도 관광지에서는 통신요금 걱정 없이 스마트폰을 마음껏 이용할 수 있게 된다. 한국관광공사(사장 정창수)는 31일 강원도, KT, LG유플러스와 업무협약(MOU)을 맺고 올해 안에 강원도 150개 관광지에 무료 와이파이존을 구축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중국인 관광객 증가와 2018평창동계올림픽에 대비, 강원도를 찾는 내·외국인 관광객들에게 스마트 관광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기획되었다. 특히 무료 와이파이를 주로 이용하는 외국인 관광객의 특성에 맞춰 춘천 남이섬, 강릉 경포해변 등 외국인 관광객의 주요 방문지에 우선 구축해 불편을 최소화할 예정이다.

외국인 개별관광객의 경우 관광정보를 찾고 페이스북 등 SNS로 친구들과 소통하기 위해 스마트폰을 이용한다. 하지만 비싼 데이터 이용료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 또한 포켓 와이파이나 선불유심칩 등을 사용하지만 아직은 무료 와이파이를 찾는 외국인 관광객이 더 많은 실정이다. 따라서 외국인 관광객에게 강원도 무료 와이파이는 한국관광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최치선 기자

NS홈쇼핑서 데이즈호텔 제주시티 '찜' 하세요

오늘 21시40분부터 분양 실투자금 16% 수익 확정 객실별 개별 등기 가능


데이즈호텔 제주시티 객실 내부. /데이즈호텔 제공

데이즈호텔 제주시티가 2일 오후 9시40분부터 1시간 동안 NS홈쇼핑을 통해 객실을 분양한다.

데이즈호텔은 세계적 호텔 체인인 윈덤그룹 소속 브랜드로 서귀포시, 명동에 이어 제주시에 첫 선을 보인다.

데이즈호텔 제주시티는 객실별로 소유할 수 있는 개별등기가 가능한 호텔이다. 분양 후 호텔 운영은 전문기업이 위탁 관리해주기 때문에 투자자가 일일이 운영하거나 관리할 필요가 없다는 것.

다른 수익형 부동산처럼 직접 임차인을 구하거나 계약을 하는 번거로움도 피할 수 있다.

제주시 지방법원 맞은편 이도2동에 들어서는 데이즈호텔 제주시티는 지하 2층~지상 10층 총 365실 규모로 소비자 선호도가 높은 45.13㎡~50.91㎡의 소형 위주로 구성됐다. 부대시설로 대형 연회장과 휘트니스센터, 비즈니스센터 등도 갖췄다. 호텔 바로 앞에는 제주 바다와 한라산이 넓고 시원하게 펼쳐진다.

객실당 분양가격은 약 1억6000만원대이며 계약금 10%, 중도금 대출 60% 전액 무이자 등 초기 투자 부담금을 낮췄다. 약 6000만원대 소액 투자로 누구나 세계적인 특급호텔을 내 명의로 할 수 있다.

50% 대출을 기준으로 실투자금액에 대해 최초 1년간은 연 16% 수익을 확정 지급해 주고 이후 9년간은 최소 연 11%의 수익을 보장해 준다.

더불어 호텔 운영을 통해 얻는 잉여 수익에 대해서는 별도로 지급해 주기 때문에 운영 실적에 따라 연 20%까지 수익을 기대해 볼 수 있다.

계약자는 성·비수기 상관없이 연간 10일간 객실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진다. 이는 타인에게 양도도 가능하다. 또한 첫해에는 제주왕복항공권 2장을 특별 제공한다. 홍보관은 서초구 양재동 5번 출구 인근에 있다. 문의 (02) 555-9994.

/박상길 기자 sweatsk@



대홍기획-닐슨컴퍼니 맞손 광고 마케팅 플랫폼 만든다

종합커뮤니케이션사 대홍기획(대표 장선욱)이 글로벌 정보분석기업 닐슨과 손을 잡는다.

대홍기획은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과 옴니채널(Omni-Channel) 트렌드에 대응할 수 있는 광고 마케팅 플랫폼을 개발하기 위해 닐슨과 함께 '옴니채널 쇼퍼 공략을 위한 광고 마케팅 플랫폼 구축에 대한 전략적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에 따라 양사는 최근 급성장하고 있는 뉴미디어를 아우르는 광고 매체 집행 효과 분석 시스템을 개발한다.

또 매체와 광고 시장에 대한 빅데이터를 토대로 옴니채널 환경에서의 소비자 행동 분석 시스템을 정교화하기 위해 협력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대홍기획과 닐슨은 다매체 다채널 시대에 부합하는 최적화된 광고 마케팅 전략을 포함한 통합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최치선 기자

동국제약 '센텔리안24' 유통망 확대

신라면세점·코스트코 입점

동국제약(대표이사 이영욱)은 고기능성 화장품 브랜드 '센텔리안24'(사진)를 신라면세점 인터넷점과 코스트코에 입점하고 이를 기념하는 판촉행사를 연다.

신라면세점 인터넷점에서는 8월 말까지 '센텔리안24' 제품을 구매하는 모든 고객에게 마데카 크림 1㎖ 샘플을 증정하고 우수 상품평을 작성한 고객에게는 마데카 크림 50㎖를 증정하는 행사를 벌인다.

또한 마데카 듀얼 모이스쳐 크림 60g을 구매하는 고객에게는 마데카 모이스쳐 마스크팩을, 마데카 크림 50㎖이나 마데카 토닝 에센스 트리트먼트 300㎖를 구매하는 고객에게는 마데카 크림 15㎖를 증정하는 행사를 9월 말까지 연다.



회원제 창고형 마트 코스트코에서는 '마데카 크림' 50㎖ 2개 번들 상품을 4만8990원에 판매한다.

이 상품은 코스트코 일산, 양재, 상봉, 대전, 대구, 부산점에서 구매할 수 있다. 8월 말까지 구매하는 고객에게는 마데카 크림 1㎖ 샘플을 증정한다. 이달부터는 전국 코스트코 12개 전점에서 마데카 크림 50㎖상품이 판매될 예정이다.

동국제약 헬스케어사업부 담당자는 "지난 수개월간 GS홈쇼핑에서 소비자들이 보여준 뜨거운 반응에 힘입어 면세점과 대형 할인마트로 판매 유통망을 확장하게 됐다"고 말했다. /최치선 기자

star bag

데뷔 30주년 앨범·공연



가수 **임재범**이 올해 데뷔 30주년을 맞이해 새 앨범을 발표하고 기념 투어를 갖는다. 오는 10월 30일과 31일 서울 올림픽 체조경기장 공연을 시작으로 전국 투어에 들어간다. 새 앨범도 현재 녹음 중이다.

'심야식당' 특별 손님



가수 **윤하**가 '심야식당'의 특별 손님으로 합류한다. 윤하는 오는 5일 방송되는 SBS 드라마 '심야식당' 19화 '장조림 돌솥비빔밥'의 특별손님으로 출연한다. OST 메인 테마곡을 부른 인연으로 출연하게 됐다.

서울·부산 내한공연



아일랜드 출신 싱어송라이터 **데미안 라이스**가 내한공연을 한다. 데미안 라이스는 오는 11월 22일 오후 6시 서울 경희대 평화의전당과 11월 24일 오후 8시 부산 벡스코 오디토리움에서 내한공연을 연다.



'메이즈 러너2' 홍보대사

걸그룹 **포미닛**이 영화 '메이즈 러너: 스코치 트라이얼'의 홍보대사로 선정됐다. 포미닛은 오늘 열리는 레드카펫 행사에 참석해 주연 주연 배우 이기홍과 토마스 브로디-생스터과 만난다.

FNC와 전속계약



방송인 **지석진**이 FNC 엔터테인먼트와 전속계약을 체결했다. FNC 측은 1일 "중국을 비롯한 아시아 전반에 구축한 탄탄한 인프라를 기반으로 지석진의 국내외 활동을 아낌없이 지원할 것"이라고 전했다.

TTL 신비소녀 벗고 친근한 배우로

영화 '치외법권'으로 돌아온 임은경



타임머신을 타면 이런 기분이 아닐까. 10년여 만에 새 영화 '치외법권'(감독 신동엽)으로 돌아온 임은경(31)과의 만남이 그랬다. 2000년대 초반 광고에서 만났던 신비로운 TTL 소녀의 모습 그대로였다. 비밀스러움과 신비로움으로 많은 이의 마음을 사로잡았던 소녀는 어느 새 친근하고 편안한 배우가 돼있었다.

임은경의 꿈은 사실 평범했다. 연예인으로 데뷔하기 전까지는 "평범한 직장인이 돼 빨리 결혼하면 좋겠다"는 보통의 꿈을 지닌 고등학생이었다. 그러나 우연찮게 이동통신 광고에 출연하게 되면서 임은경의 삶은 순식간에 달라져버렸다. 신비주의 콘셉트가 대중의 호기심을 더욱 자극했다. 평범했던 소녀는 그렇게 자신의 뜻과 상관없이 스타가 됐다.

하지만 배우 활동을 하면서도 광고 속 이미지가 어김없이 임은경을 따라다녔다. 그런 이미지에서 벗어나는 것이 가장 힘들었다.

"많은 작품을 했지만 보는 분들은 저의 다른 모습을 느끼기에 부족했던 것 같아요. 사실 배우 활동을 하면서도 '내가 뭘 하고 있는 걸까'라고 생각할 때가 많았어요. 조금 더 공부를 하고 연기를 했다면 더 좋았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요."

그렇게 임은경은 대중 앞에서 서서히 멀어져 갔다. 힘든 공백기가 찾아왔다. 임은경은 "인생 공부를 한 시기"였다고 털어놨다.

"힘든 시기였어요. 그래서 그동안 못해본 것들을 많이 했어요. 발레도 배우고 등산도 다니고 친구도 만나고 여행도 다녔고요. 도서관도 가고 서점도 가며 평범한 일상을 보냈죠. 그러다 보니 '다시 돌아오지 않을 시간인데 알차게 보내야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스스로 힘든 시간을 잘 극복했다고 칭찬할 수 있게 됐죠(웃음)."

어쩌면 너무 이른 연예계 데뷔가 임은경에게 뜻하지 않은 공백기를 갖게 한 것일지 모른다. 임은경은 "예전에는 사람들과 부딪히는 게 어려웠다. 현장도 불편하고 힘들 때가 많았다"며 "서른이 넘은 뒤부터 사람과의 소통에서 즐거움을 느끼게 된다"고 말했다. 대중의 곁을 잠시 떠나 인간 임은경의 삶에 집중하면서 생긴 변화이기도 하다.



너무 이른 데뷔, 공백기도 찾아와
평범한 일상으로 힘든 시기 극복

TTL소녀 이미지 탈피 가장 힘들어
우울했던 20대보다 지금이 행복해

늦은 성장통을 겪으면서 임은경의 마음은 다시 배우의 길로 향했다. 여전히 자신을 생각하고 그리워하는 팬을 위해, 그리고 아직 보여주지 못한 진짜 배우로서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였다. 하지만 급하게 욕심을 내고 싶지 않았다. '치외법권'을 복귀작으로 선택한 것도 그런 이유에서다. 조연이지만 '시실리 2㎞'로 인연을 맺었던 임창정과의 재회, 그리고 최다니엘, 장광 등 좋은 배우들과의 작업에 선뜻 마음이 갔다. 화려함보다 편안함을 선택한 복귀였다.

다시 돌아온 임은경에게 달라진 것이 하나 있다. 더 이상의 신비주의는 없다는 것이다. 임은경으로부터 공백기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힘든 시기였지만 그럼에도 소중한 기억으로 남았을 것 같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임은경은 "우울했던 20대로는 다시 돌아가고 싶지 않다"고 솔직하게 말했다. 그리고 웃었다. 힘든 시간을 긍정하는 웃음이었다. 지금 임은경에게는 바로 현재가 가장 중요하다.

"친근한 배우, 낯설지 않은 배우로 기억되고 싶어요. 옆집 누나, 언니 같은 배우처럼요."

/장병호 기자 solanin@metroseoul.co.kr
사진/손진영 기자 son@

나영석PD, 웹예능으로 새로운 도전

'1박2일' 원년 멤버들과 다시 뭉친 '신서유기'

케이블로 둥지를 옮겨 성공적인 행보를 걷고 있는 나영석 PD가 웹예능으로 새로운 도전에 나선다.

나영석 PD가 연출하는 '신서유기'는 4일 오전 10시 네이버 TV캐스트를 통해 공개된다. 웹 콘텐츠라는 형식에 맞게 10분 안팎의 영상 클립으로 매번 5편이 함께 공개된다.

1일 열린 제작발표회에서 나영석 PD는 "웹으로 공개하는 건 처음이기 때문에 제일 잘 하는 걸 해보기로 했다. 무조건 재미를 주자는 걸 모토로 삼았다. 깊게 생각하지 않고 재미있는 부분만 추려서 쉽게 즐길 수 있도록 힘을 뺐다. 허리띠 두 칸 정도 풀고 만들었다고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신서유기'는 손오공, 사오정, 저팔계, 삼장법사가 등장하는 중국의 고전 '서유기'를 예능으로 재해석한 리얼 버라이어티쇼다. '1박2일' 원년 멤버인 강호동, 이승기, 은지원, 이수근이 '서유기'의 캐릭터를 하나씩 맡아 나영석 PD와 5년 만에 다시 뭉쳤다.



1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63스퀘어에서 열린 tvN '신서유기' 제작발표회에 참석한 출연진들이 포토타임을 갖고 있다. /손진영 기자 son@

지난 8월 초 중국 산시성 시안에서 4박 5일 동안 촬영을 진행했다. 앞으로도 중국 각 지역을 돌면서 시리즈로 제작된다. 기존 여행 콘셉트와는 다르게 여행에 게임쇼를 접목했다.

도박 사건으로 활동을 중단했던 이수근의 예능 복귀작으로 화제가 되기도 했다. 이날 제작발표회에서 이수근은 "쉬면서 곰곰이 생각했을 때 내가 제일 잘 할 수 있는 건 많은 분들에게 웃음을 주는 것이었다. 다시 예능을 하게 되면 예전보다 더 나은 모습을 보여드리는 것이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인 것 같다"며 심정을 고백했다. /하희철 기자 hhc@


channel
THE
맛있는
One샷
푸드트럭을 타고 펼치는
세상에서 가장 짜릿한! 요리배틀!
매주 목요일 밤 11시 E채널
t.cast

서울시향 단원들 "정명훈 신뢰하고 지지해"

정명훈 예술감독 사퇴에 입장 표명
"시향 발전 위해 예술감독 역량 필요"



서울시립교향악단 단원들이 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에서 정명훈 예술감독을 지지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손진영 기자 son@

서울시립교향악단 단원들이 최근 사의를 밝힌 정명훈 예술감독에 대해 "마에스트로 정명훈에 대한 신뢰와 지지를 보낸다"며 사퇴 반대 의사를 밝혔다.

서울시향 단원협의회는 1일 오전 서울 세종문화회관 서울시향 연습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명훈 예술감독의 사의에 대한 단원들의 입장을 표명했다.

단원협의회 측은 "서울시향 단원들은 현재 상황에서 서울시향을 더욱 더 발전시키고 서울시향의 위상을 높일 수 있는 최적의 지휘자는 마에스트로 정명훈이라고 믿고 있다"며 "지난 10년 동안 마에스트로와 서울시향 단원들은 놀랄만한 성과를 거두었다. 이는 정명훈이었기에 가능했던 일"이라고 전했다.

이어 "서울시향의 발전을 위해서는 예술감독과 상임지휘자가 필요하다"며 "서울시향은 마에스트로 정명훈의 음악적 역량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울시향이 재단법인으로 운영된 지난 10년 동안 부족하고 불합리했던 부분들을 재정비하고 더 나은 오케스트라로 도약하기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예술감독의 부재는 치명적인 걸림돌이 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또한 단원협의회 측은 "서울시향과 마에스트로 정명훈에 대한 고의적, 악의적 비판은 중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명훈 예술감독이 보여준 인권을 위한 노력에 대한 지지, 그리고 서울시의 안정적인 지원과 콘서트홀의 필요성도 함께 강조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총 103명의 단원 중 60여명이 참석했다. 박무일 대표단원은 "단원 전원의 생각을 정리해 발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명훈 예술감독을 둘러싸고 불거진 윤리적 의혹과 논란에 대해서는 "음악을 하는 단원들이 생각을 밝힐 부분은 아니라고 본다"며 "아무 결론도 나지 않은 상황에서 입장을 밝힐 수 없다"고 말을 아꼈다.

정명훈 예술감독은 서울시향이 재단법인으로 출범한 지난 2005년 예술고문으로 영입됐다. 이듬해 예술감독 겸 상임지휘자를 맡아 서울시향을 아시아 정상급의 오케스트라로 발전하는데 큰 역할을 했다.

그러나 지난해 12월 박현정 전 대표의 직원 성희롱·폭언 논란 과정에서 정명훈 예술감독의 고액연봉 논란과 업무비 횡령 의혹이 불거져 논란에 휘말렸다. 정명훈 예술감독은 지난달 28일에 한 매체와의 인터뷰를 통해 "예술감독으로서의 부담에서 벗어나 음악에 집중하고 싶다"며 사퇴 의사를 밝혔다. 당시 서울시향 측은 "내년에 예정된 공연은 지휘할 예정"이라며 "최종 결정은 서울시향 이사회와 서울시의회와 조율해 마무리할 것"이라고 입장을 전했다. /장병호 기자 solanin@metroseoul.co.kr

TV 하이라이트

글로벌 남편들의 한국 적응기

◆ KBS2 '내편, 남편'

오후 8시55분



추어탕을 보양식으로 먹는 구수한 입맛을 가진 미국인 남편 리 스매더스의 특별한 쇼핑이 그려진다. 아침부터 전기 요금을 걱정하는 아내와 에어컨 사투를 벌인 리는 미국에서 여행차 한국을 방문한 어머니의 쇼핑가자는 이야기에 화색이 돈다. 캐나다 남편 폴 잼버는 가문 대대로 즐겨 먹어온 헝가리 보양식을 장인어른께 선보인다. 파키스탄 남편 사킵은 한국 장모님이 차려주는 파키스탄 보양식 밥상을 받는다.

/정리=하희철 기자 hhc@

◆ MBC '라디오스타'

오후 11시15분

연예계 대표 상남자 임창정, 전진, 자이언티, 황치열이 전격 회동을 가진다. 상남자답게 이들은 각자 막강한 입담을 뽐내며 쉴틈 없는 토크 릴레이를 펼친다.



◆ JTBC '연쇄쇼핑가족'

오후 11시

'효율적인 첫 차 구매'를 주제로 이야기를 나눈다. 박명수는 자신의 구매 비법이 '중고차만 사는 것'이라고 고백한다. 그동안 쌓아온 중고차 구매팁과 유의사항을 공개한다.



◆ KBS1 '숨터'

오후 10시55분

해발 1010m에 위치한 광덕산 천문대와 해발 1390m에 위치한 우리나라 최초의 국립천문대인 소백산 천문대에서 바라본 별빛 가득한 밤하늘의 모습을 전한다.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KBS1	KBS2	MBC	SBS	JTBC	MBN	tvN	FOODTV
05:00 KBS 뉴스 05:10 내 고향 스페셜 06:00 KBS 뉴스광장 07:50 인간극장 08:25 아침마당 09:30 KBS 뉴스 10:00 중계방송 국회교섭단체대표연설 11:00 KBS네트워크특선 아름다운 충북 아름다운 사람들 11:55 바른말 고운말	06:00 2TV 아침 1부 07:00 2TV 아침 2부 08:00 KBS 아침 뉴스타임 09:00 TV소설 별이 되어 빛나리 09:40 여유만만 10:40 지구촌 뉴스 11:00 부탁해요, 엄마 (재)	05:00 MBC 뉴스 05:10 그린실버 고향이 좋다 스페셜 06:00 MBC 뉴스투데이 1부 06:25 MBC 뉴스투데이 2부 07:50 이브의 사랑 08:30 생방송 오늘 아침 09:30 MBC 생활뉴스 09:45 기분 좋은 날 11:00 여자를 울려 (재)	05:00 SBS 5 뉴스 05:10 굿모닝 510-생활의 발견 06:00 모닝와이드 (1~3부) 08:30 어머님은 내 며느리 09:10 좋은아침 10:00 SBS 뉴스 10:30 SBS 생활경제 11:30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행 스페셜	06:00 이규연의 스포트라이트 (재) 07:00 아웅다웅 동화나라 S2 (재) 07:30 JTBC NEWS 아침 & 09:10 내 나이가 어때서 (재) 10:25 냉장고를 부탁해 (재) 11:50 비정상회담 (재)	05:50 휴먼다큐 사노라면 (재) 06:50 굿모닝 MBN 08:00 아침의 창 매일경제 09:20 뉴스파이터 10:30 전국네트워크뉴스 10:40 고수의 비법 황금알 (재) 11:50 아궁이 (재)	06:00 코미디 빅리그 꿀잼 에디션 (재) 06:30 집밥 백선생 (재) 07:50 삼시세끼 어촌편 (재) 09:40 울지 않는 새 10:30 집밥 백선생 (재)	05:00 농업신화 06:00 귀농 다큐 '살어리랏다' (재) 06:30 나를 바꾸는 30분 (재) 07:00 찾아라! 팔도 맛지도 07:30 열정식당 (재) 08:30 그곳에 그집 09:00 한식의 세계화1 -밀라노 엑스포 2015 (재) 10:00 세기의 기행 판소리의 맛과 멋 11:00 집밥의 여왕 (재)
12:00 KBS 뉴스 12 13:00 역사저널 그날 (재) 13:55 시청자칼럼 우리 사는 세상 (재) 14:00 KBS UHD특선 백두산 (재) 16:00 오늘의 경제 16:10 2015 한국방송대상 수상작 시사기획 창 (재) 17:00 KBS 뉴스 5 17:20 시사진단	13:00 다큐멘터리 3일 (재) 14:00 KBS 뉴스타임 14:10 세상의 모든 다큐 (재) 15:05 후토스 미니미니 (재) 15:30 자동공부책상 위키 (재) 16:00 TV 유치원 16:30 별별가족 (재) 16:35 동물의 세계 16:55 비타민 (재)	12:00 MBC 정오뉴스 12:20 중계방송 국회교섭단체대표연설 12:55 여왕의 꽃 (재) 14:05 리얼스토리 눈 (재) 14:30 똑?똑! 키즈스쿨 15:00 MBC 뉴스 15:10 마법천자문 15:40 경제매거진 M 스페셜 16:25 딱 너 같은 딸 (재) 17:00 MBC 이브닝 뉴스	12:00 SBS 12뉴스 12:30 중계방송 국회교섭단체대표연설 12:50 오!마이 베이비 (재) 14:00 영재발굴단 (재) 15:00 SBS 뉴스 16:00 내 마음의 크레파스 스페셜 16:30 꾸러기 탐구생활 17:00 SBS 뉴스 퍼레이드 17:30 바이클론즈	13:10 학교 다녀오겠습니다 (재) 14:35 JTBC 뉴스 현장 15:50 4시 사건 반장 17:10 5시 정치부 회의	13:00 기막힌 이야기 실제상황 (재) 14:10 기막힌 이야기 실제상황 (재) 15:30 뉴스 BIG 5 16:50 뉴스&이슈	12:00 막돼먹은 영애씨 14 (재) 13:20 막돼먹은 영애씨 14 (재) 14:40 현장토크쇼 TAXI (재) 15:50 삼시세끼 정선편 (재) 17:40 집밥 백선생 (재)	12:30 식신로드 시즌2 (재) 13:30 스타 뉴스 14:30 한국의 맛 시즌2 15:00 세기의 기행 판소리의 맛과 멋 16:00 필로교수의 쿠킹콘서트 한우예찬 (재) 17:00 활력 충전 건강이 보인다 (재) 17:30 담소룡의 소림식탁 (재)
18:00 6시 내고향 19:00 KBS 뉴스 7 19:30 신 실크로드 '아시아 TV로드' 연다 20:25 가족을 지켜라 21:00 KBS 뉴스 9 22:00 생로병사의 비밀 23:00 KBS 뉴스라인 23:40 문화빅뱅 더 콘서트 24:50 2015 서울드라마어워즈 해외드라마걸작선	18:00 KBS 글로벌 24 18:30 2TV 저녁 19:50 다 잘될 거야 20:30 생생정보 20:55 글로벌 남편백서 내편, 남편 22:00 어셈블리 23:10 추적 60분 24:10 스포츠 하이라이트 24:35 2차대전 종전 70주년 기획 다큐 <세계대전>	18:10 생방송 오늘 저녁 19:15 위대한 조강지처 19:55 MBC 뉴스데스크 20:55 딱 너 같은 딸 21:30 리얼스토리 눈 22:00 밤을 걷는 선비 23:15 황금어장 라디오스타 24:10 MBC 뉴스 24 24:55 메이저리그 다이어리	18:00 생방송 투데이 19:20 돌아온 황금복 20:00 SBS 8 뉴스 20:55 영재발굴단 22:00 용팔이 23:15 한밤의 TV연예 24:35 나이트라인	18:20 표준, 미래를 이끌다 19:40 연금복권 520 19:55 JTBC 뉴스룸 21:40 유자식상팔자 23:00 연쇄쇼핑가족 24:25 냉장고를 부탁해 스페셜	18:10 MBN 뉴스와이드 19:40 MBN 뉴스 8 20:40 엄지의 제왕 (재) 21:50 나는 자연인이다 23:00 기막힌 이야기 실제상황 24:20 속풀이쇼 동치미 (재)	19:10 고성국의 빨간 의자 20:20 무비스토커 21:40 수요미식회 23:00 내친구와 식샤를 합시다 24:20 문제적 남자 (재)	18:00 Save My Bakery (재) 19:00 집밥의 여왕 20:30 최현석의 크레이지타임 (재) 21:00 Pizza Masters 21:30 Outrageous Food 22:00 Chopped Canada 23:00 오감도 24:00 식신로드 시즌2 (재)

‘해외파 vs 국내파’ 상금 3억 놓고 접전

KLPGA

한화금융 클래식 2015
이정민·고진영 등 경쟁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 투어 최대 규모의 상금을 놓고 해외파와 국내파가 정면 승부를 벌인다.

오는 3일부터 나흘 동안 충남 태안 골든베이 골프장(파72·6631야드)에서 한화금융 클래식 2015가 열린다. 총상금은 12억원, 우승상금은 3억원이다. 지난 7월 열린 BMW 레이디스 챔피언십과 같은 규모지만 지난해까지 KLPGA 투어 가운데 상금 규모가 가장 큰 대회였다.

이번 대회에는 미국프로여자골프(KLPGA)와 일본여자프로골프(JLPGA)에서 활약하는 선수들이 대거 출전해 국내 선수들과 우승을 다툰다.


이정민


고진영

올 시즌 4승을 올린 전인지(21·하이트진로)는 다음주 열리는 LPGA 투어 마지막 메이저 대회인 에비앙 마스터스 준비때문에 참가하지 않는다. 대신 국내파 중에서 시즌 3승을 기록 중인 이정민(23·비씨카드)과 고진영(20·넵스)이 4승에 도전한다.

상반기에만 3승을 올린 이정민은 최근 상위권에 이름을 올리지 못했다. 이번 대회에서 그동안의 부진을 말끔히 씻겠다는 각오다.

이정민과 고진영은 대회 결과에 따라 상금 순위를 바꿔놓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얻었다. 현재 1위 전인지(7억5800만원)에 3억원이 채 모자라지 않은 3위(5억1300만원)와 4위(4억7200만원)에 각각 올라 있다.

BMW 레이디스 챔피언십 우승으로 단숨에 상금 순위 2위(5억2800만원)에 오른 조윤지(24·하이원리조트) 역시 역전을 노린다.

LPGA 투어에서 활약하는 선수 중에는 김인경(27·한화)과 지은희(29·한화), 이일희(27·볼빅)가 모처럼 국내 대회에 출전해 우승에 도전한다.

이번 대회에는 올 시즌 LPGA 투어에 뛰어든 재미동포 앨리슨 리(19)도 초청 선수로 참가해 국내 팬들에 첫선을 보인다. 그는 지난 3월 기아클래식 4위, 5월 킹스밀 챔피언십 3위, 지난달 캐나다 퍼시픽 오픈 공동 5위에 오르는 등 만만치 않은 저력을 보이고 있다. 현재 세계랭킹 29위다.

JLPGA 투어 선수로는 김하늘(27·하이트진로)이 7월 하이트진로 챔피언십 이후 다시 국내 대회에 참가한다. 2012년 JLPGA 상금왕 전미정(33·진로재팬)과 정재은(26·비씨카드)도 우승 사냥에 나선다.

/하희철 기자 hhc@metroseoul.co.kr


2018 러시아 월드컵 아시아지역 2차 예선 라오스와의 경기를 사흘 앞둔 31일 오후 경기도 화성종합경기타운에서 열린 공개훈련에서 대표팀 선수들이 운동장을 돌며 몸을 풀고 있다. /연합뉴스

슈틸리케호, 월드컵예선 홈에서 첫 출격

한국, 내일 라오스와 격돌
전력차로 대량 득점 노려

슈틸리케호가 2018 러시아 월드컵축구대회 아시아지역 2차 예선이 시작된 뒤 처음 홈경기에 나선다.

울리 슈틸리케 감독이 이끄는 축구 대표팀은 3일 오후 8시 경기도 화성종합경기타운에서 라오스와 월드컵 2차예선 G조 3차전을 치른다.

한국 축구는 라오스와의 역대 전적에서 3전 3승을 기록 중이다. 세 번의 대결 가운데 최근에 맞붙은 경기는 15년 전인 2000년에 열린 아시안컵 축구대회다. 당시 한국은 김은중과 설기현이 나란히 해트트릭을 기록하면서 9-0으로 승리했다.

라오스는 외국인 감독에게 대표팀을 맡기는 등 전력강화에 나섰지만 아직 국제축구연맹(FIFA) 랭킹은 177위에 불과하다. 한국이 포함된 G조에서 최약체로 꼽히는 라오스는 지난 6월 11일 미얀마와의 예선 1차전을 2-2로 비겼다. 같은 달 16일 레바논에는 0-2로 무릎을 꿇는 등 예선 2경기에서 아직 승리를 기록하지 못했다. 이 때문에 이번 라오스전 역시 FIFA 랭킹 54위인 슈틸리케호의 승리가 점쳐지고 있다.

객관적인 전력차와 함께 익숙한 홈에서 경기를 치른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무더기 골이 쏟아져 고질적인 골 결정력에 대한 고민을 타파하고 좋은 흐름을 탈 가능성이 높다.

최전방 공격자원으로 대표팀에 복귀한 석현준(비토리아FC)은 합류 전까지 3경기 연속 공격포인트를 기록하면서 좋은 컨디션을 보이고 있다. K리그 클래식 무대에서 10골을 터뜨리며 토종 득점왕을 노리는 황의조(성남)의 활약도 기대된다. 최근 프리미어리거가 된 손흥민(토트넘)과 베테랑 이청용(크리스털팰리스), 에이스로 급부상한 이재성(전북)으로 구성된 2진 공격수의 기량도 물이 올랐다.

다만 기존 최전방 공격수인 이정협(상주)의 공백과 갑작스럽게 아우크스부르크로 이적이 결정된 구자철이 독일로 재출국해 출전이 무산된 점이 아쉽다.

/하희철 기자

정현, 오늘 메이저 첫 승 재도전

KLPGA

호주 제임스 덕워스와 경기



한국 테니스의 간판 정현(69위·삼성증권 후원·사진)이 그랜드 슬램 대회 단식 본선 첫 승에 재도전한다.

정현은 2일(한국시간) 미국 뉴욕의 빌리진 킹 내셔널 테니스센터에서 열리는 US오픈 테니스대회 남자단식 본선 1회전에서 제임스 덕워스(95위·호주)를 상대한다.

지난달 31일 발표된 경기 일정에 따르면 정현은 1일 오전 11시부터 시작되는 15번 코트의 네 번째 경기로 US오픈 본선 데뷔전을 치르게 됐다. 앞서 여자 단식 두 경기와 남자 단식 한 경기가 배정돼 있어 한국 시간으로는 2일 오전 5시경 경기가 시작된다.

한국 선수가 메이저대회 단식 본선에서 승리를 거둔 것은 2008년 프랑스오픈 이형택(39)이 마지막이다. 이후 정현이 올해 6월 윔블던에서 이형택 이후 7년 만에 메이저 대회 단식 본선에 출전했으나 승리를 따내지는 못했다. 당시 세계 랭킹 151위였던 피에르-위그 에베르(프랑스)를 만나 풀세트 접전 끝에 2-3(6-1 2-6 6-3 2-6 8-10)으로 분루를 삼켰다.

정현의 이번 대회 1회전 상대는 자신보다 세계 랭킹이 낮은 선수다. 대진운이 따랐다. 덕워스는 올해 4월 세계 랭킹 82위까지 오른 것이 개인 최고 순위다. 랭킹 면에서 정현보다 뒤진다. 그러나 올해 호주오픈과 윔블던에서 본선 2회전에 올랐고 올해 투어 대회에서 8강에 두 차례 진출하는 등 만만치 않은 실력을 갖춘 선수다.

정현은 경기를 하루 앞두고 빌리진 킹 내셔널 테니스센터 13번 코트에서 오후에 약 45분간 한 차례 훈련을 소화하며 컨디션을 조절했다.

/하희철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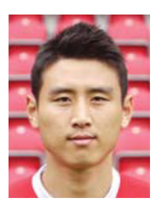
구자철, 아우크스부르크 이적

홍정호·지동원과 한솥밥

한국 축구 대표팀 미드필더 구자철(26·사진)이 독일 분데스리가 아우크스부르크로 이적했다.

아우크스부르크는 분데스리가 이적시장 마감일인 1일(한국시간) 홈페이지를 통해 구자철의 재영입 사실을 공표했다. 계약기간은 2017년 6월까지 2년 동안이며 연장 옵션이 포함됐다.

이적료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웹사이트 트랜스퍼마르크트는 구자철의 이번 이적료를 350만 유로(약 46억원) 수준으로 추정하고 있다.



구자철의 이번 이적은 여러모로 긍정적인 효과를 얻을 것으로 예상된다. 2011년 제주 유나이티드에서 볼프스부르크로 이적하며 분데스리가에 진출한 구자철은 2012년 아우크스부르크로 임대돼 1년 반 동안 활약한 바 있다. 이 기간에 구자철은 정규리그 36경기에 나서 8골을 넣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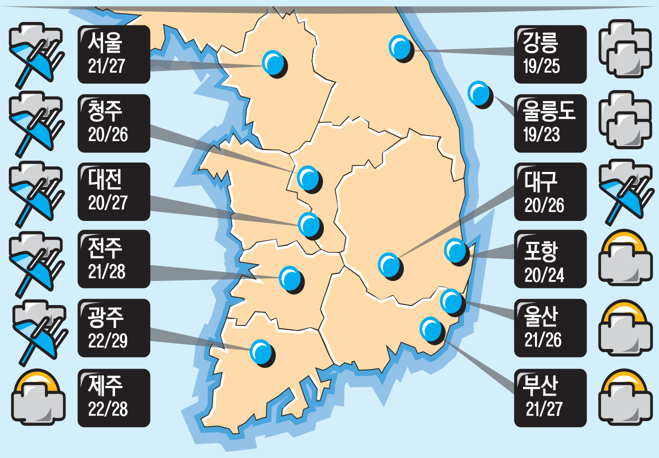
또한 국가대표 수비수 홍정호(26)와 공격수 지동원(23)이 이미 팀에 자리잡고 있어 적응하는 데 많은 도움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하희철 기자

날씨

9/2 수 일출시각 06:02 일몰시각 19:01

·자료제공 : Kweather 케이웨더(주) www.630.co.kr



자외선지수 천식 폐질환가능지수
뇌졸중가능지수 피부질환가능지수

자료제공 : 인제대학교 서울백병원 (www.paik.ac.kr)

출근길 두뇌 스트레칭 재미가 듬뿍! 아이큐가 쑥쑥!

SUDOKU

1. 모든 세로줄에는 1~9까지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들어갑니다.
2. 모든 가로줄에는 1~9까지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들어갑니다.
3. 가로, 세로3×3으로 이뤄진 작은 사각형 안에도 1~9의 숫자가 겹치지 않아야 합니다.

9					3			
		3	2	5	1	9	8	
		1						4
							1	2
			6	3	5			
7	6							
2						7		
	7	4	3	9	2	5		
			5					9

	4			1	5			
				4		6		
1					2	9	8	
	3					1		5
	1	6				3	9	
9		2					6	
	5	8	4					2
		7		6				
			2	5			3	

스도쿠 정답

9	2	7	4	8	3	1	5	6
6	4	3	2	5	1	9	8	7
5	8	1	7	6	9	2	3	4
4	3	5	9	7	8	6	1	2
1	9	2	6	3	5	4	7	8
7	6	8	1	2	4	3	9	5
2	5	9	8	1	6	7	4	3
8	7	4	3	9	2	5	6	1
3	1	6	5	4	7	8	2	9

8	4	9	6	1	5	2	7	3
2	7	3	8	4	9	6	5	1
1	6	5	3	7	2	9	8	4
7	3	4	9	8	6	1	2	5
5	1	6	7	2	4	3	9	8
9	8	2	5	3	1	4	6	7
6	5	8	4	9	3	7	1	2
3	2	7	1	6	8	5	4	9
4	9	1	2	5	7	8	3	6

문제 제공= 보누스

'멘사 스도쿠 프리미어'
(피터 고든·프랭크 롱고 지음)

생활 영어

This project is my baby

A: How's freelancing these days? Still working paycheck to paycheck?

B: Things are going great. Got a couple projects at the moment.

A: Good to hear!

B: Yeah n they all pay pretty well… except one.

A: So why even take it on? Time is money and you can't afford to waste yours!

B: This is different. It doesn't pay much but it's got potential.

A: Oh? Do tell.

B: All I can say is that it's super exciting.

A: …you're just going to tease me like that?

B: Sorry. I signed a confidentiality agreement. :/ But in a few months you'll find out. It's going to blow you away!

A: Wow! You sound really enthusiastic.

B: Yeah! **This project is my baby.** I'm so excited!!!

이 프로젝트는 내 분신이야

A: 요즘 프리랜스 일 어때? 여전히 그날 벌어 그날 먹고 사는 중이야?

B: 잘 풀리고 있어. 지금 두세 가지 프로젝트를 맡았거든.

A: 잘됐네.

B: 응. 글구 보수도 꽤 괜찮아… 한 가지만 빼고.

A: 그런 걸 뭐하러 맡아? 시간이 돈인데 낭비할 여유 없잖아!

B: 이건 달라. 돈은 별로 안되지만 가능성이 있거든.

A: 오? 얘기 좀 해봐.

B: 지금으로선 이 일이 넘 재밌다는 말밖에 할 수 없어.

A: …그렇게 감질나게 할 거야?

B: 미안. 내가 비밀 계약에 사인했거든. 몇 달 지나 알게 될 거야. 완전 깜짝 놀랄걸!

A: 와우! 너 제대로 삘 받은 거 같은데.

B: 응! **이 프로젝트는 내 분신이거든.** 완전 신나!!!

* n: and의 약어
* baby: 애지중지하는 것, 분신

김상회의 사주속으로

김상회 역학연구원
02) 533-8877
www.saju4000.com

외국에 나가서 일자리 찾는 건 어떨까요? 준비 부실땐 되레 낭패… 내년 용띠와 연분

여자 89년

Q 안녕하세요. 외국인 게스트하우스에서 주야간 교대 근무를 하고 있는 여성입니다. 선생님의 사주 상담결과를 항상 챙겨보고 있습니다.
저는 승무원이라는 직업을 갖고 싶은데 좋은 결과를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무직은 너무 답답해 활동적인 일을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현재 제가 하고 있는 일은 원하는 직업이 아닌데다 근무지도 집에서 가깝지 않아서 그런지 육체적 심적으로 조금 힘이 드는 것 같습니다. 워킹비자를 발급 받아서 외국으로 나가볼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
저의 직업과 관련한 사주가 어떠한지, 그리고 연애운은 어떠한지 궁금합니다.

A 사주 속으로는 오픈된 지면이므로 사주 생년월일시를 지면에 올려야 하기에 글을 올리실 때는 이점을 숙지해주십시오.
괴강(보스기질)이므로 지적 수준이 높고 그러기에 속세를 떠나려는 성향을 비칠 때가 있어 지금 뭔가가 썩 풀리지 않으므로 다소 피해보고도 싶은 상황으로 봅니다.
책임의식이 강하며 신의가 있고 신망이 있으니 행동이나 마음에 자신이 그러하기 때문에 대인 관계에서도 자기와 같은 성향을 요구하므로 주변에서 불편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생일주(生日柱)가 자상(字象:글자의 모양)으로는 창 과(戈)의 글자가 겹쳐있으므로 수술하는 경우가 있으며 지금은 배우자궁이 묶여 있으며 형살(刑殺:흉함)을 받고 있는데 운에서도 파살(破殺)을 맞고 있어서 매사를 조급하게 시도하거나 경험이 없는 일에 행동하거나 욕심을 내어 어떤 일에 손을 대다가 명예와 시간을 잃습니다.
즉 운이 안 풀릴 때는 해외로 나가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겠으나 귀하의 사주 원국에는 해외로 나갈 역마가 있어야 하는데 한시적이고 미약하므로 굳이 해외로 나가신다면 철저히 준비를 해야 하며 도피형식으로 하면 낭패를 봅니다.
인연 운은 2016년 용띠생과 연분이 있는데 음욕살(淫慾殺)이 있으니 글자 그대로 소심하고 남자가 색정적인 기질을 내포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차후 궁합을 잘 살펴서 만나도록 하십시오. 외국인 게스트하우스에서 일을 하는 것도 일종의 활인 업이 될 수 있다고 볼 수 있으나 게스트하우스에서 일을 할 때 서비스 의식의 진정성이 있어야 하므로 이런 점에 자신이 있거나 아니면 자기 수양의 실력이 요구되는 점이 있음을 유의하세요.

자신의 사주를 알고 싶은 독자들은 메트로 홈페이지(www.metroseoul.co.kr) 연재 '사주 속으로'를 클릭해 생년월일과 태어난 시, 그리고 상담을 원하는 내용을 적어 올려 주십시오. 추첨을 통해 사주풀이를 해드리겠습니다.

신점[神占] 운세 9월 2일 (음 7월 20일) 힐링운세(www.healingunse.com) 060-800-8877

쥐 **48년생** 과도한 욕심은 금물. **60년생** 금전운은 지출이 많으니 관리에 신경쓰세요. **72년생** 기회를 놓치지 말고, 자신감 있게 행동하세요. **84년생** 애정운이 하락하고 있으니 서두르지 마세요.

소 **49년생** 너무 외로워 하지 마세요. **61년생** 모든 모임에는 꼭 참석하세요. **73년생** 자신의 주관을 가지고 행동하세요. **85년생** 목돈을 얻을 수 있습니다.

호랑이 **50년생** 어려울수록 진실한 행동이 필요합니다. **62년생** 공적인 일엔 행운이 들어올 것입니다. **74년생** 교통 사고에 각별히 유의하세요. **86년생** 욕심도 좋지만 충분한 휴식이 필요합니다.

토끼 **51년생** 모든 문서 체결은 지금하세요. **63년생** 주변 사람들에게 관심을 돌려 보세요. **75년생** 방황하는 당신의 마음 자체가 문제입니다. **87년생** 이것 저것 손을 대봤자 싫증만 남을 뿐입니다.

용 **52년생** 깊이 있는 인생을 위하여 한가지 일에 열중 하세요. **64년생** 능력 이상의 청탁으로 곤란에 빠질 수 있습니다. **76년생** 담배든 술이든, 한가지는 절제해 보세요. **88년생** 태도를 분명히 하세요.

뱀 **53년생** 심사 숙고 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65년생** 타인에게 조언을 구하고 자중하세요. **77년생** 이달 말이면 좋은 일이 생깁니다. **89년생** 역시 친구 밖에 없습니다.

말 **54년생** 원대한 소원이라도 쉽사리 성취됩니다. **66년생** 친구의 도움으로 문제를 해결하게 됩니다. **78년생** 금전계로 피곤하기는 하나 이내 해결됩니다. **90년생** 정열적인 사랑을 하게 됩니다.

양 **55년생** 자신감을 가지고 행동하세요. **67년생** 자신을 믿고, 행동하세요. **79년생** 애정운은 하락세입니다. **91년생** 너무 먼 미래를 걱정하지 말고 지금 당장의 일만 신경쓰세요.

원숭이 **56년생** 주변 사람들에게 아량과 덕을 베풀어야 합니다. **68년생** 여행운과 국외로 나갈 운이 많습니다. **80년생** 과감하게 용기를 내어 밀고 나가세요. **92년생**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닭 **57년생** 새로운 것을 시도해 보세요. **69년생** 갈고 닦은 실력을 발휘할 기회가 옵니다. **81년생** 모든 것이 순리대로 될 것입니다. **93년생** 행운은 당신에게 있습니다.

개 **58년생** 바쁜 한 달을 보낼 것입니다. **70년생** 오랜 고난 끝에 보람을 찾게 됩니다. **82년생** 방해하는 자가 있어도 걱정하지 마세요. **94년생** 노력을 한다면 원하는 수준만큼 성취하게 될것입니다.

돼지 **59년생** 시간이 흐를수록 크게 성공하게 됩니다. **71년생** 인내를 길러야 할 때입니다. **83년생** 적극적으로 일을 처리해야 길합니다. **95년생** 힘든 상황이 많이 닥칩니다.

정직하고 우수한 은행원 선발해야



구자익의 metro단상

지난달 중순쯤이다. 중학교 2학년짜리 조카가 수첩 한 권을 손에 들고 찾아왔다. 여름방학 과제를 도와달라고 부탁해왔다. 과제는 직업 체험이었다. 10가지 직업을 정한 뒤 그 직업의 특성에 대해 조사해야 한다고 했다.조카의 손을 붙잡고 국회의원과 경찰관, 소방관, 기자, 세관공무원, 의사, 사회복지사, 건축사, 보안시스템 프로그래머 등을 소개해 줬다.

조카는 이들과 인터뷰를 한 뒤 스마트폰으로 인증사진도 찍었다. 마지막 한 가지 직업이 남았을 때 고민하다가 은행원이 떠올랐다. 곧장 평소에 잘 알고 지내던 지점장에게 전화를 걸어 자초지정을 설명하고 찾아갔다. 차 한잔을 마시는 동안 조카는 은행원이 하는 일에 대해 꼬치꼬치 캐묻고 꼼꼼하게 메모했다. 마지막 질문으로 은행원이 지녀야할 가장 큰 덕목이 무엇이냐고 물었다. 이 질문에 지점장은 거침없이 '정직함'이라고 말했다. 은행원은 여러 사람들이 땀 흘려 번 돈 등 재물을 관리하는 일을 하기 때문에 정직해야 한다는 게 그의 설명이었다.

오랜만에 듣는 단어였다. 사전 설명은 '마음에 거짓이나 꾸밈이 없이 바르고 곧음'이다. 고객들의 재산을 다루는 은행원이 갖춰야할 가장 큰 덕목이라는 점에 이견이 없을 것이다. 그러나 정직하지 못한 은행원들도 수두룩하다. 특히 정직하지 못하거나 은행원들이 정직하게 근무하도록 관리하지 못한 고위 임원들도 많다. 이런 사실은 시중 은행들의 올해 상반기 보고서에 자세히 나타나 있다.

보고서에는 전·현직 은행장이나 부행장, 본부장 등이 금융감독원이나 금융위원회에서 받은 제재기록이 적나라하게 표시돼 있다. 금전거래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것도 있지만 은행에서 돈을 빼돌리는 등 고객의 뒤통수를 친 사례도 있다. 지난 2010년부터 최근까지 시중 5개 은행에서 50명 이상의 고위 임원들이 정직이나 견책, 경고 등의 제재를 받았다.

은행별로는 국민은행이 31명으로 가장 많았고 하나은행 9명, 신한은행 7명, 우리은행 4명, 기업은행 2명의 순이었다. 비슷한 비위 행위가 끊이지 않고 계속 이어지기도 했다. 선량하고 정직한 은행원들이 더 많고 억울하다고 여겨지는 부분도 없지는 않겠지만 중학교 2학년짜리 조카에게는 '낯 뜨거운' 대목이다.

조만간 시중 은행들의 신입 행원 선발이 이어진다. 이들 대부분은 외국어 성적이나 자격증 등의 '스펙'을 보지 않고 직무적성을 따져 우수한 인재를 선발한다는 방침이다. 이 과정에서 반드시 살펴야할 게 고객들의 가치를 소중하게 여기는 '정직한 성품'이다. 은행들이 좋은 실적을 내는데 필요한 인재만 뽑지 말고 정직함을 갖춘 우수한 인재들을 선발야 한다는 얘기다. 이들이 베테랑 은행원으로 성장하면 해외에서도 더 많은 신뢰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정직함, 오랜만에 들어봤다. 잊을만 하면 터져 나오는 은행 임원들에 대한 제재 소리가 이제는 끊어지길 기대해 본다.

식품업계 '가격 꼼수 인상', 비난 여론에도 여전



기자 수첩

정은미 <유통부>

식품 업계의 '가격 꼼수 인상'에 대한 소비자들의 비난 여론이 커지고 있다.

꼼수 인상은 가격은 그대로 유지한 채 제품 중량을 줄여 가격 인상 효과를 보는 식이다.

페르노리카코리아는 이달부터 임페리얼 12년산의 용량을 500㎖에서 450㎖로 줄였지만 가격은 출고가 2만6334원으로 기존과 동일하게 판매한다.

이에 대해 회사 측은 "경쟁사들과 용량을 맞추고 소용량에 대한 소비자의 수요를 반영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가격에 대한 소비자의 반발을 줄이려는 꼼수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이 같은 꼼수 인상은 식품 업계에선 비일비재한 일이기 때문이다.

앞서 롯데제과는 지난 4월 '초코 빼빼로'의 판매가 960원(대형마트 기준)을 유지하면서 중량을 52g에서 46g으로 11.5% 줄였다.

같은 가격의 '아몬드 빼빼로'와 '땅콩 빼빼로'도 중량을 39g에서 36g으로 7.6% 낮췄다.

정식품도 베지밀에이(A) 담백한 맛과 베지밀비(B) 달콤한 맛의 가격은 유지한 채 용량만 1000㎖에서 950㎖로 5% 줄였다. CJ제일제당도 스팸볶음밥·스팸김치볶음밥 파우치 제품 가격을 유지하면서 중량을 690g에서 660g으로 줄이는 식으로 가격 인상 효과를 봤다.

이런 꼼수 인상에 대해 업체들은 "원재료 가격 상승"을 이유로 들고 있다.

하지만 식품 업계의 1분기 실적을 보면 밀가루와 설탕 등은 국제 시장에서 원자재 가격이 하락해 내수 침체 속에서도 호실적을 기록했다.

식품 업계들의 가격인상 꼼수에 대한 소비자 불만과 비난 여론은 비단 오늘에서만 지적된 문제는 아니다. 하지만 그때만 피하면 된다는 식의 태도로 꼼수 인상은 계속되고 있다.

'눈 가리고 아웅 식'의 이같은 가격 인상은 당장은 기업에 이익을 가져다 줄 수 있지만 계속되는 소비자 우롱은 브랜드 신뢰를 떨어뜨리고 결국 매출 하락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알아야 할 것이다.

인사

◇메트로신문 ▲편집국 뉴미디어팀장 임대원

◇이투데이 ▲미래설계연구원 고문 김판곤 ▲편집국 시장국 금융전문기자 부장 이진우

◇아주경제 ▲문화연예부장 조성진

◇뉴스웨이 ▲호남취재본부 본부장 오영주

◇행정자치부 △실장급 ▲인천광역시 행정부시장 고위공무원 전성수 ▲강원도 행정부지사 고위공무원 배진환 △국장급 ▲정부청사관리소 과천청사관리소장 고위공무원 양복완 △과장급 ▲행정서비스통합추진단 부장 부이사관 조상명

◇문화재청 △과장급 전보 ▲현충사관리소장 서기관 원성규

◇강원도 ▲총무행정관 김만기 ▲기획관 김보현

◇전북도교육청 ▲임실교육지원청 교육장 정나영

◇중소기업중앙회 △이사 승진 ▲경영기획본부장 강영태 ▲산업지원본부장 최윤규 △이사대우 승진 ▲인력정책실장 소한섭

◇한국은행 ▲공보관 서봉국 ▲발권국장 박성준 ▲별관건축본부장 김상기 ▲국제협력실 김준태 ▲인사경영국 김준기 ▲인사경영국 김진용 ▲경기본부 기획조사부장 정지영

◇포스텍 ▲부총장 조무현 ▲대학원장 김병현 ▲기획처장 겸 대외협력처장 송우진 ▲교무처장 최윤성 ▲입학학생처장 전상민 ▲학술정보처장 이승용 ▲산학협력단장 겸 연구처장 정완균 ▲엔지니어링대학원장(대행) 이을범 ▲정보통신대학원장(대행) 김대진

◇한화손해보험 △지역단장 ▲강동 정윤진 ▲마산 김정렬 ▲부산 이재우 ▲경남 김덕경 ▲창원 민병돈 ▲거제 조동언 ▲울산 김경곤 △파트장 ▲부산지역본부 마케팅 지일권 ▲상품경쟁력 강화 TFT 유석용

社說

믿었던 수출의 배신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수출만 믿고 살아왔다. 수출만 잘 되면 나라경제가 커지고 국민생활도 좋아질 것이라고 믿어왔다.

옳든 그르든 그런 믿음이 우리나라 경제정책 당국자들을 지배해 왔다. 그러다 보니 내수는 뒷전이었다. 그런데 믿었던 수출마저 이제 우리를 배신하고 있다.

산업자원부가 1일 발표한 수출입통계에 따르면 지난달 수출액은 393억3000만 달러로 작년 같은 달보다 14.7% 줄어든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월간 수출액 감소폭도 세계금융위기가 발생한 직후인 2009년 8월 이후 6년 만에 가장 크다.

수출액 감소폭은 올 들어 계속 커지다가 6월과 7월에는 다소 진정됐지만 8월에 다시 커진 것이다.

앞으로도 개선될 여지가 별로 크지않다. 중국의 성장둔화로 말미암아 전세계 경제가 몸살을 앓고 있다. 이에 따라 국제유가가 하락함은 물론 공산품의 단가도 저조하다. 이를테면 우리나라가 자랑하는 반도체를 비롯해 주요 수출제품의 단가가 회복되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수출물량이 늘어도 수출액은 감소한다. 수출부진이 이렇게 장기화됨에 따라 과거처럼 수출로 벌어들인 소득으로 국내경제를 살찌게 한다는 식의 도식은 통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경제운용 패러다임의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다. 수출에만 의존하던 경제체질을 바꾸고 내수를 활성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나라처럼 자원이 부족한 나라에서 내수만으로는 부족한 것도 사실이다. 따라서 수출과 내수의 조화와 균형이 필요한 것이다.

정부도 그 필요성을 인식하고 최근 일부 대형 자동차와 가전제품의 소비세율을 낮췄다. 그러나 이처럼 세금을 찔끔 내리는 방식으로는 내수가 체감할 정도로 살아나기 어렵다. 보다 획기적으로 내수를 살릴 수 있는 방안이 절실하다. 이대로 가다가 미국의 금리가 오르고 중국의 위안화가 또다시 절하되면 우리 경제는 더 어려워질 공산이 크다. 그러니 그 이전에 충분한 대책이 나와야 할 것이다.

무리한 손목사용 '손목건초염' 부른다

생활건강

피아노 학원을 다닌지 2년 된 직장인 최모(32)씨는 처음엔 악보도 못 보는 '왕초보'였지만 지금은 다른 수강생들과 연주회를 열 정도로 실력이 향상됐다. 하지만 얼마 전 피아노 연습 도중 갑자기 손목에 심한 통증을 느껴 병원을 찾은 최씨는 '손목건초염'이라는 진단을 받아 당분간 연습을 할 수 없게 됐다. 결혼을 앞두고 여자친구에게 프러포즈를 하기 위해 무리하게 반복 연습 한 탓에 손목 힘줄 주위에 염증이 생긴 것이다.

건초염은 힘줄이 있는 곳이라면 어느 부위에서도 발병할 수 있는데 힘줄을 둘러싸고 있는 막이나 막의 내부에 염증이 생겨 통증을 유발하거나 부종을 동반하는 질환이다.

손목건초염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먼저 손목을 무리하게 사용하는 일을 줄여야 한다. 이후 염증을 감소시키기 위해 보호대를 손목 관절의 고정 후 소염제, 얼음찜질, 물리 치료 등을 시행할 수 있다. 대부분의 환자들은 이러한 보존적 치료로 질환을 극복하는 편이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수술적 치료도 필요할 수 있다.

손목건초염은 충분히 예방이 가능한 질환이다. 평소 관절이나 근육을 강화시키는 운동을 자주하고, 반복적인 동작 사용을 피해 신체 부위에 무리를 주지 않아야 한다. 어쩔 수 없이 반복 동작을 해야 할 때는 틈틈이 휴식을 취해 관절이나 손가락 스트레칭을 하거나 서서히 돌려주는 가벼운 운동을 하는 것도 좋다.

척추 관절질환 특화 용인분당예스병원 도현우원장은 "건초염은 무리한 관절 사용으로 인해 서서히 진행되는 질환이기 때문에 자각증상이 동반되는 경우가 흔하지만, 가벼운 근육통으로 생각하고 방치해 상태를 악화 시키는 경우가 많다"며 "건초염을 방치할 경우 통증 주변의 힘줄과 근육이 파열을 일으킬 수 있어 정확한 검사와 함께 치료 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SOLCO.
주|솔고바이오메디칼
수소샘
H₂-Dispenser®
추석맞이 가족사랑 이벤트
'백세건강연구소'가 드리는
'대한민국 건강프로젝트'
100세 시대
100일 체험
분 한정
그 동안 성원에 감사드리며, 이벤트는 9월 말까지만 진행됩니다.
백년건강 수소수가 답이야
| 전속모델 |
가수 윤수현
작고 강력한 스마트 수소수기
수소수 디스펜서
SHD-100
컬러 와인 / 그레이 중 선택
수소샘
검색
대한아토피협회
우수 추천 제품
6중 티타늄백금
수소생성장치 특허기술
깨끗한 물과 수소의 만남_내 몸을 웃게 하는 차원이 다른 수소수를 경험하세요!
솔고 수소수 발생기만의 수소용존 혁신기술
특허 6중 티타늄백금 전기분해 시스템
6중 티타늄백금 전기분해 시스템은 물(H₂O)에서 산소(O₂)와 수소(H₂)를 신속하고 안전하게 분리하여
수소를 물분자 사이에 강력하게 분산, 용존시키는 솔고 수소수 생성기만의 특허 기술입니다.
백금 | 티타늄 | 백금
백금 | 티타늄 | 백금
1 최소 1,000ppb 이상 높은 수소용존 수치
2 수소용존시간이 오래 유지
3 온도변화에도 높은 수소용존량 유지
24시간 무료상담전화 080-600-2020
대리점 및 기술이전 문의 1588-0275
www.arambi.kr
통신판매업자신고번호 : 제2014-서울중구-0505호